

傷寒明理續論·陽毒의 14證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東洙 · 申榮日*

A Research on the Epidermic disease of Yang etc. in SangHanMyungRiSokLon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Lee Dong-su · Sheen Yeong-il

Accumulation of pathogens in chest refers to a syndrome of fullness, stuffiness and pain in the chest, diaphragm, epigastrium and abdomen, which is ascribable to accumulation of pathogenic heat with stagnancy of fluid or phlegm in the chest.

Retching refers to vomiting with sound but without any vomitus. It is usually ascribable to adverse flow of ki due to deficiency of stomach, or by pathogenic heat or cold, and failure in descending of the stomach-ki. It may also be found in Soyang disease.

Bloody purulent stool refers to passing stool with blood and pus. It is formed mainly due to invasion of the stomach and the intestines by epidemic pathogenic summer-heat, steaming of stagnateed damp-heat fighting against ki and blood, or improper diet, obstruction of bu-ki stagnation of blood and ki.

Key Words : SangHanMyungRiSokLon(傷寒明理續論), Epidermic disease of Yang(陽毒)

I. 緒 論

『傷寒明理續論』은 陶華¹⁾의 末年 著作인 傷寒六書

* 교신저자: 申榮日,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61) 330-3511, maggie@dsu.ac.kr

1) 陶華의 字는 尙文이고, 號는 節庵이며 餘杭人이다. 洪武 2年(1369年)에 태어나서 正統十年까지(1445年) 77歲를 生存하였다. 어려서부터 儒學을 공부하여 百家에 널리 通하였으며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에게서 秘藏한 醫籍을 받고 軒岐의 醫術에 精通하였으며 傷寒論에 대해 研究精進하여 奧妙한 이치를 깨닫고 새로이 발명한 것이 많았다. 永樂年間(1403-1424)에 醫學訓科에 나아갔고, 宣德年間(1426-1435)에 벼슬에 올랐다. 陶氏는 일찍이 杭州에서 醫業을 시작하였는데, 切脈에 精通하여 古法에 엄매이지 않고 證에 따라 새로운 處方을 創方하였으며, 奇異한 疾病이라도 손을

가운데 맨 나중에 있는 것으로 漢代이전의 傷寒病의 證候와 脈象과 處方에 대하여 그의 醫學思想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論술이다. 그는 이 책에서 金代의 成無己가 저술한 『傷寒明理論』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아 서두에 傷寒三陰三陽脈證論, 陰陽虛實用藥寒溫辯, 六經用藥格法, 陰陽虛盛用藥寒溫辯, 三陰三陽脈證, 汗下溫正法, 傷風見寒傷寒見風脈證, 三陽合病, 太陽陽明併病 등의 총론적인 면을 추가하였고, 아울러 溫病의 범주에 속하는 春溫變熱, 瘧, 風溫濕溫, 風濕中濕, 溫毒中喝을 추가하여 단지 50證候의 해설에 그친 『傷寒明理論』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傷寒明理

쓰면 바로 나왔기 때문에 '陶一帖'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續論』이라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는 傷寒論을 연구하면서 『傷寒全生集』 『傷寒六書』를 저술하였는데, 모두 王叔和의 編制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傷寒全生集』은 元 亨利 貞의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元에서는 傷寒의 특징 즉 察病法, 脈法, 合病, 標本등의 총론적인 면을 다루었고, 亨과 利에서는 三陽病에서 흔히 나타나는 證候인 發熱, 惡寒, 煩躁, 頭痛, 口渴, 蓄血 등에 대해 論述과 用藥을 제시하였고, 貞에서는 三陰病, 霍亂, 陰陽易 등의 證候를 중심으로 논술하고 있어서 임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반해 『傷寒六書』는 『傷寒瑣言』, 『傷寒蒙秘』, 『殺車槌法』, 『傷寒證脈藥截江網』, 『一提金』 및 『傷寒明理續論』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全生集』에 비해 論述이 간략하여 후에 外感病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要點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傷寒蒙秘』는 發熱, 頭痛, 汗出, 煩熱 등 70여 證候에 대하여 각각 鑑別, 治法, 治方을 자세히 논한 것이고, 『傷寒瑣言』은 傷寒論의 編制, 傷寒의 脈法, 用藥, 溫病 등 傷寒論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면에 대해 자세하게 論述하고, 아울러 諸方에서 새로운 處方에 대한 用例와 解說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殺車槌法』은 劫病法, 制藥法, 解藥法, 煎藥法 등 藥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가 創方한 37종의 處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一提金』은 六經病의 辨證法, 診脈法, 用藥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傷寒證脈藥截江網』은 仲景先師의 治法이 石函에 보관된 遺芳嘉秘를 얻어 보고서 그가 임상에 적용하여 틀림이 없는 것들만을 모아 만든 것으로 傷寒의 原因, 日數에 따른 轉變原則, 病證의 관찰방법, 標本論治, 生死鑑別 및 婦人傷寒의 差異點을 논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傷寒明理續論』은 王叔和가 편제한 傷寒論의 條文에 따른 연구방법을 탈피하여 許叔微의 『傷寒發微論·72證候』와 成無已의 『傷寒明理論』의 형식으로 傷寒病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후를 중심으로 논한 것이다. 陶華는 前人들의 論點이 비록 여러 증후에 대해서 논하였지만 상세하지 못한 것과, 비록 상세하긴 하나 다만 50證에 對해서만 究명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 보고들

은 바를 모아 分類하고 例를 넣고 참작하여 外感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病證鑑別法, 溫病, 婦人傷寒 등의 면에서는 傷寒溫病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證候 가운데는 仲景 傷寒論에서 제시하지 않은 陽毒에 대하여 열과 갈증이 심하며 얼굴이 붉고 煩燥 狂言하며 이를 악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時行熱病으로 보고 黑奴丸 같은 새로운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胸脇滿痛에서는 胸滿과 心下滿, 脇滿과 腹中滿을 나누어 설명하고, 胸滿은 대부분 表證을 띠고 있으니 마땅히 發汗시키고, 脇滿은 대부분 半表半裏에 있으니 마땅히 和解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結胸을 熱實結胸, 小結胸, 寒實結胸으로 분류명명 하였으며, 腹滿에 대하여 陽熱로 인한 것은 腹滿하면서 咽乾하고, 陰寒으로 인한 것은 腹滿하면서 吐利하고 소화가 되지 않으며, 吐下後에 腹滿한 것은 中氣가 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嘔吐에서는 嘔 吐 乾嘔로 분류하고 嘔와 吐는 같이 치료할 수 있으나 乾嘔는 熱이 胃脘에 생겨서 穀氣와 더불어 아우르게 되어 熱氣가 위로 熏蒸하여 心下가 痞結하므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太陽病은 自汗에, 少陰病은 下利에, 厥陰病은 涎沫에 중점을 두고 치료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咳逆을 딸꾹질로 嘔를 트림으로 보아 咳逆과 嘔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傷寒明理續論』 가운데 陽毒의 14證候에 대하여 校勘 註釋 國譯 考察을 가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研究에 착수하였다.

II. 研究方法

1. 原文은 黃瑾明의 點校 人民衛生出版社의 『傷寒六書』를 기준하였다.
2. 原文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傷寒論 條文은 脚注처리하고 찾기 쉽도록 뒤에 注文번호를 ()로 제시하였다.
3. 註釋가운데 內經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

장은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

- 4.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限 代化하였다.
- 5. 翻譯은 原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용 구나 따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은 그대로 사용 하였다.
- 6. 題目에 알아보기 쉽도록 차례에 따라 章으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였다.
- 7. 本 研究에 투여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註釋에 '(00)', 引用文獻에 '『00』',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III. 本 論

第1章. 陽毒

【原文】

大熱大渴에 黑奴丸⁽¹⁾이요 中暑 發渴엔 白虎加人參湯⁽²⁾이라

【註釋】

- (1) 黑奴丸: 大黃二兩 釜底煤 黃芩 芒硝 竈突墨 梁上塵 小麥奴各一兩 麻黃(마디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 넣었다 말린 것)三兩 전체를 곱게 갈아서 꿀로 彈子만하게 환으로 만들어 새로 길어온 물로 一丸씩 씹어 삼킨다.
- (2) 白虎加人參湯: 知母六兩 石膏一斤(뿜아서 형겅에 썬다) 甘草炙二兩 粳米六合 人參三兩을 물 한말에 넣고 찌어 익을 정도로 달인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國譯】

大熱大渴에는 黑奴丸²⁾을 투여하고, 中暑로 渴證이

2) 黑奴丸 時行熱病六七日 未得汗 脈洪大或數 面赤目瞪 身體大熱 煩躁狂言欲走 大渴甚 又五六日已上不解 熱在胸中 口噤不能言 爲壞傷寒 醫所不治爲死 或人精魂已竭 心下纒暖 發開其口 灌藥下咽卽活 兼治陽毒及發斑 大黃二兩 釜底煤 研入 黃芩 芒硝 竈突墨研入 梁上塵 小麥奴各一兩 麻黃去節 泡一二沸焙乾稱三兩 又件搗羅爲細末 蜜爲丸彈子大 以新汲

생기는 것은 白虎加人參湯을 투여한다.

【考察】

陶華는 『傷寒全生集』에서 陽毒은 面赤 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하므로 五日이면 치료할 수 있으나 七日이 되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고 證에 따라 陽毒升麻湯³⁾, 三黃石膏湯⁴⁾으로 치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第2章. 胸脇滿痛

【原文】

胸滿者는 胸膈間氣塞閉也니 非心下滿⁽¹⁾이요 脇滿者는 脇肋下氣填脹滿也니 非腹中滿⁽²⁾이라 蓋邪自表傳裏에 必先自胸脇以至心腹而入胃하니 是以로 胸滿은 多帶表證하니 宜發汗이요 脇滿者는 多在半表半裏之間이니 宜和解요 至於邪結胸中而爲實者는 又須湧吐之也라

太陽病을 下後에 脈促胸滿은 桂枝去芍藥湯⁽³⁾이니 病在於胃氣한대 芍藥入榮 故로 去之라

陽明病에 喘而胸滿 猶帶表證은 不可下니 與麻黃湯⁽⁴⁾ 麻黃杏仁甘草石膏湯⁽⁵⁾이라

胸脇俱滿하고 或脇下硬痛 或嘔吐 舌上白胎 或不大便엔 竝屬小柴胡湯⁽⁶⁾이라

傷寒五七일에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飲食 心煩喜嘔하고 或脇痞硬엔 柴胡加牡蠣湯이라

傷寒七八일에 下之하야 胸滿煩驚 小便不利 譫語 一身盡痛 不可轉側엔 柴胡加龍骨牡蠣湯⁽⁷⁾이요 胸中痰實엔 瓜蒂散⁽⁸⁾吐之라 胸膈不快하고 填滿閉塞하며 脣青手冷하고 脈細沈하며 少情緒하고 或腹痛은 此名太陰이라

【註釋】

- (1) 心下滿: 오목가슴이 형체가 있지 않고 다만 氣

水 研下一丸 『類證活人書卷十六』

- 3) 治發斑 狂言 下利 吐膿血 咽喉痛 犀角(中) 升麻(中) 射干(中) 桔梗(上) 甘草(下) 斑毒盛 加大青黃連 水煎服
- 4) 治傷寒陽毒 溫熱病 發狂不得汗 熱甚者 黃連(上) 黃芩(中) 黃柏(中) 山梔(下) 石膏(中) 知母(下) 麻黃(中) 甘草(下) 葶藶(中) 升麻(下) 加乾薑與芍藥 名加減三黃石膏湯 水薑姜一片 加葱煎 服取汗出愈心煩加辰砂

가 물리고 막혀 그득하거나 그득한 느낌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 (2) 腹中滿: 윗배가 형체가 있지 않고 다만 氣가 물리고 막혀 그득하거나 그득한 느낌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 (3) 桂枝去芍藥湯: 桂枝湯에서 芍藥을 제거하고 쓴다.
- (4) 麻黃湯: 麻黃三兩 桂枝二兩 甘草一兩炙 杏仁七十個 물 9되에 먼저 마황을 넣고 7되가 되도록 달인 다음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을 모두 넣고 반되가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8홉을 따뜻하게 복용하고 약간 땀을 낸다.
- (5) 麻黃杏仁甘草石膏湯: 麻黃四兩去節 杏仁五十個去皮尖 甘草二兩炙 石膏半斤碎綿裹 물 七升到 먼저 麻黃을 달여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을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6) 小柴胡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人參三兩 半夏半斤 甘草炙 生薑各三兩 大棗十二枚 물一斗二升到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여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7) 柴胡加龍骨牡蠣湯: 半夏二合 大棗六枚 柴胡四兩 生薑一兩半 人參一兩半 龍骨一兩半 鉛丹一兩半 桂枝一兩半 茯苓一兩半 大黃二兩 牡蠣一兩半을 물 8升到 넣고 4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大黃을 넣고 한두번 끓어오르도록 다시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一升씩 복용한다.
- (8) 瓜蒂散: 瓜蒂一分熬黃 赤小豆一分 각각 따로 곱게 가루내어 섞어서 한 술가락을 뜨거운 물에 香豉 한 홉을 넣고 저어 찌꺼기는 버리고 맑은 것에 가루를 타서 한꺼번에 복용한다.

【國譯】

胸滿은 胸膈에 邪氣가 응체한 것으로 心下滿과는 좀 다르고, 脇滿은 脇肋부위아래에 邪氣가 쌓여 脹滿한 것이니 腹中滿과 다르다. 대개 邪氣가 表에서 裏로 전변함에 반드시 먼저 胸脇을 지나 心腹으로 가서 胃로 들어가므로 이러한 까닭에 胸滿은 대부분 表證을 띠고 있으니 마땅히 發汗시키고, 脇滿은 대부분

半表半裏에 있으니 마땅히 和解시키고, 邪氣가 胸中에 맺혀서 實한 것은 또한 모름지기 湧吐해야 한다.

太陽病을 下法을 쓴 後에 脈促하고 胸滿한 것은 桂枝去芍藥湯을 투여해야하니 病이 胃의 氣分에 있는데 芍藥은 榮分으로 들어가므로 빼고 투여한다.

陽明病에 喘症이 있으면서 胸滿하고 오히려 表證이 있는 것은 瀉下하면 안되니 麻黃湯 麻黃杏仁甘草石膏湯을 투여한다.

가슴부위와 옆구리가 모두 그득하고 或 脇下가 단단하면서 아프거나 嘔吐하면서 白苔가 끼거나 大便을 보지 못하는 것에는 모두 小柴胡湯을 투여한다.

傷寒에 걸린 지 5,7일에 往來寒熱하고 胸脇이 그득하여 괴롭고 음식을 먹고자 하지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면서 자주 嘔逆症이 있거나 或 脇下가 그득하면서 단단한 것에는 柴胡加牡蠣湯을 투여한다.

傷寒에 걸린 지 7,8일에 下法을 써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小便을 보지 못하며 讖語하고 온 몸이 쭈서 뒤척일 수 없는 것에는 柴胡加龍骨牡蠣湯을 투여하고, 胸中에 痰이 쌓인 것은 瓜蒂散으로 涌吐시킨다. 胸膈이 不快하고 氣가 閉塞하여 그득하고 입술이 파랗고 손이 차가우며 脈이 細沈하고 우울하며 或 腹痛하는 것은 太陰病이다.

【考察】

邪氣가 表에서 裏로 전변함에 먼저 胸脇, 心腹, 胃의 순서로 들어간다고 본 것은 六經 전변과정이 太陽 少陽 陽明의 순서로 본 것이다. 이는 太陽을 表, 陽明을 裏로 볼 때 半表半裏인 少陽의 위치를 太陽과 陽明의 사이로 보는 것인데, 張仲景이 『傷寒論』에서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의 순서로 나열한 것을 본다면, 少陽에서 말하는 半表半裏는 陽病人 表와 陰病人 裏의 사이라고 보아야한다. 역대의 醫家들이 모두 少陽을 太陽과 陽明의 사이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陶華도 역시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第3章. 結胸

【原文】

經⁽¹⁾에 曰病發於陽而反下之 熱入因作結胸⁽²⁾이라하고 注에 曰發熱惡寒者는 發於陽也라하니 外證은

項強 心下滿硬而痛이 是也라 此爲實邪在裏니 法當下之요 若脈浮大커니 若表證커니 若水氣填⁽³⁾은 不可下니 亦有不因下而心下硬滿者라 經에 曰病人手足厥 脈乍緊 邪結胸中 心滿而煩 飢不欲食은 當吐之라하니 是則病在胸中也라 經에 曰陽明病에 心下硬滿은 不可下어늘 下之면 利不止而死라하니 是則邪氣自表傳裏로대 留於心下하야 未全爲實이니 法當吐之 故로 有此戒라 其或結胸證具而煩躁者는 不治라

結胸에 寸脈浮하고 關尺皆沈緊은 宜下요 若脈浮大 或有表證은 先用小柴胡湯하고 表已解면 下之라 大結胸에 不按而痛連臍腹 痛硬不可近엔 大陷胸湯⁽⁴⁾이요 或大峻이면 用九이라

小結胸에 按之而痛 心下硬엔 小陷胸湯⁽⁵⁾이요 熱實結胸에 懊懣⁽⁶⁾煩渴 心下痛엔 少與大陷胸湯이요 寒實結胸의 無熱證엔 三物白散⁽⁷⁾ 枳實理中丸⁽⁸⁾이라

【註釋】

- (1) 經: 傷寒論을 말한다.
- (2) 結胸: 太陽病이나 太陽 少陽 兼病을 잘못 瀉下하여 表熱이 內陷하거나 實邪가 裏部로 들어가 흥중의 水飲과 뒤섞여 발생하는 것으로 胸腹이 脹滿하고 疼痛하여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3) 填: 病也, 병들 전.
- (4) 大陷胸湯: 大黃六兩 芒硝一升 甘遂一錢 水 六升到 먼저 大黃을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芒硝를 넣고 한두번 끓여 오를 정도 달인 다음 甘遂末을 타서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5) 小陷胸湯: 黃連一兩 半夏半升 栝蒌實一枚 水 六升到 먼저 栝蒌를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나머지 약을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복용한다.
- (6) 懊懣: 심흉부에 열이 나면서 답답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이다. ※懣: 괴로워할 오. 懣: 괴로워할 뇌.

(7) 三物白散: 桔梗三分 芫花一分 貝母三分 桔梗과 貝母를 갈고 거기에 芫花를 넣고 절구통에서 빵아 따뜻한 물로 타서 마신다. 強人은 半錢씩 노약자는 적게 복용한다.

(8) 枳實理中丸: 茯苓二兩 人參二兩 枳實十六片麩炒 白朮二兩 乾薑二兩炮 甘草二兩炒 곱게 가루 내어 계란노른자 정도로 丸을 만들어 매번 뜨거운 물에 一丸씩 복용한다.

【國譯】

傷寒論에 ‘陽에서 發病한 것을 도리어 瀉下하면 熱이 들어가서 結胸이 된다.’⁵⁾하였고, 注에 ‘發熱 惡寒하는 것은 陽에서 發病한 것이다.’⁶⁾고 하니 外證은 뒷목이 뻐뻐하고 心下가 그득하면서 단단하며 아프다. 이는 實邪가 裏部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瀉下해야 하고, 만약 脈이 浮大하거나 表證이거나 水氣로 인한 病은 瀉下하면 안되니 下法으로 因하여 心下가 硬滿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傷寒論에 ‘환자가 手足이 厥冷하고 脈이 갑자기 緊하고 邪氣가 胸中에 맺히면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고프나 밥을 먹지 못하니 마땅히 吐法을 투여한다.’⁷⁾하였으니 이는 病이 胸中에 있는 것이다. 傷寒論에 ‘陽明病에 心下가 硬滿한 것은 瀉下시킬 수 없거늘 瀉下하면 下利가 그치지 않아 죽는다.’⁸⁾라 하였으니 이는 邪氣가 表에서 裏로 傳變하였으나 아직 心下에 머물러서 完全하게 腑實이 되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吐法을 써야하므로 이와 같이 경계한 것이다. 結胸證이 갖춰져 있으면서 煩躁하는 것은 치료하지 못한다.

結胸에 寸脈이 浮하고 關尺脈이 모두 沈緊한 것은 마땅히 瀉下하고, 脈이 浮大하고 或 表證이 있는 것은 먼저 小柴胡湯을 투여하고 表邪가 풀리면 下法을 투여한다. 大結胸에 누르지 않았는데 痛證이 배꼽부위까지 미치며 단단하면서 아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大陷胸湯을 투여하고, 或 너무 藥이 셀까 생각되면 大陷胸丸을 투여한다.

- 5) 病發於陽 而反下之 熱入因作結胸 (131)
- 6) 病有發熱惡寒者 發於陽也 (7)
- 7) 病人手足厥冷 脈乍緊者 邪結在胸中 心下滿而煩 飢不能食者 病在胸中 當須吐之 宜瓜蒂散. (355)
- 8) 陽明病 心下硬滿者 不可攻之 攻之 利遂不止者死 利止者愈. (205)

小結胸에 눌러야 아프고 心下가 단단한 것은 小陷胸湯을 투여하고, 熱實結胸에 안절부절하면서 煩渴하고 心下가 아픈 것은 大陷胸湯을 조금 투여하고, 寒實結胸에 熱證이 없는 것은 三物白散 枳實理中丸⁹⁾을 투여한다.

【考察】

結胸證은 傷寒中風證을 誤下하여 발생한 것으로 大結胸, 小結胸, 寒實結胸, 熱實結胸으로 나누어 治法을 제시하고 水結胸과 구별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小結胸에는 小陷胸湯, 熱實結胸에는 大陷胸湯, 寒實結胸에는 三物白散 枳實理中丸을 제시하였는데, 水結胸에 대한 자세한 證候와 治法은 들지 않고 있다. 水結胸은 水邪가 胸脇部에 영긴 結胸으로 心下가 울렁거리고 머리에서 땀이 나며 심한 熱이 없는 경우는 먼저 갈증이 난 후에 悶痛이 발생하고 그곳을 만져보면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金匱要略』에서는 小半夏茯苓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¹⁰⁾.

第4章. 痞

【原文】

經에 曰病發於陰而反之下 因作痞¹⁾라하고 注에 云無熱惡寒者는 發於陰也라하니 輕於結胸者라 心下滿而不痛하고 按之則濡는 是其虛邪留滯 故로 但滿而不痛也니 惟枳 桔이 最良이라 欲攻之인댄 只從表證解而後可라

痞者에 關脈多沈은 枳實理中丸²⁾ 半夏瀉心湯³⁾이요 關脈沈¹⁾者는 三黃湯⁴⁾으로 瀉其肝이요 若惡寒者는 附子瀉心湯⁵⁾이요 服此湯이나 痞不去하야 煩渴 小便不利엔 五苓散⁶⁾이라

下後復汗하야 心下痞而惡寒하고 表不解면 不可攻痞니 先與桂枝湯하고 表解리야 乃功痞니 三黃湯이라

9) 枳實理中丸 治傷寒結胸欲絕心膈高起 手不得近者 以此治之 茯苓二兩 人參二兩 枳實十六片 麩炒 白朮二兩 乾薑二兩 炮甘草二兩 炒 右搗羅爲細末 爲丸如鷄子黃大 每服一丸 熱湯化下 連進二三服 胸中豁然 渴者 加瓜蒌根二兩 下利者 加牡蠣二兩 煨之 『類證活人書卷十八』

10) 卒嘔吐 心下痞 膈間有水 眩悸者 半夏加茯苓湯主之 小半夏加茯苓湯方 半夏一升 生薑半斤 茯苓三兩 『金匱要略痰飲咳嗽病脈證并治 第十二』

表未解而心下妨悶 曰支結이니 柴胡桂枝湯⁷⁾이요 胸脇滿而微結은 小柴胡湯 加乾薑 牡蠣요 表證未罷한대 因攻之하야 挾熱而利 心下硬은 爲表裏俱病이니 桂枝人參湯⁸⁾이라

下利 心下痞硬 乾噎食臭 腹鳴엔 甘草瀉心湯⁹⁾ 生薑瀉心湯¹⁰⁾이라 治法에 通用桂枝人參湯이나 若下利不止 則治下焦니 赤石脂禹餘糧湯¹¹⁾이요 又不止는 只利小便이니 五苓散이라

發熱不解하고 嘔吐不利 心下痞硬엔 大柴胡湯¹²⁾이요 吐汗下後에 噎氣¹³⁾痞硬엔 旋覆花大赭湯¹⁴⁾이라 若咳逆¹⁵⁾氣虛는 用四逆湯¹⁶⁾이요 胃寒은 先宜理中丸¹⁷⁾하고 後用旋覆大赭湯이라

【校勘】

1) 關脈沈: 關脈浮로 하는 것이 옳다.

【註釋】

- (1) 痞: 胸脇部에 가스가 차서 답답하지만 통증이 없는 증상이다.
- (2) 枳實理中丸은 枳實理中湯을 丸으로 만든 것이다. 枳實理中湯 治寒結胸 心下滿悶 按之痛者 及胃口著寒傷生冷者 枳實中 乾薑中 人參中 白朮中 甘草下 加砂仁 桔梗 陳皮 厚朴, 寒이 甚하면 加熱附, 生冷飲食胃口著寒에는 加草菓 丁香, 寒痰에는 加半夏 한다.
- (3) 半夏瀉心湯: 半夏半升洗 黃芩 乾薑 人參各三兩 黃連一兩 大棗十二枚 擘 甘草三兩 炙 물 한말에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4) 三黃湯: 大黃黃連黃芩瀉心湯이다. 『傷寒論』에는 大黃黃連瀉心湯이라고 하여 大黃二兩 黃連一兩을 끓는 물 二升到 오랫동안 적셨다가 짜서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주가들이 여기에는 반드시 黃芩이 포함되어야 瀉心湯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 (5) 附子瀉心湯: 大黃 黃連 黃芩各一兩 附子一枚

앞의 세약을 끓는물 二升到 오랫동안 적셨다가 짜서 찌꺼기는 버린 다음 附子汁을 넣고 따뜻하게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

(6) 五苓散: 猪苓十八銖¹¹⁾去皮 澤瀉一兩六銖 白朮十八銖 茯苓十八銖 桂枝半兩去皮를 가루내어 따뜻한 물로 하루에 세 번 方寸匕¹²⁾를 타서 마신다.

(7) 柴胡桂枝湯: 桂枝 黃芩 人參各一兩半 甘草一兩炙 半夏二合半 芍藥一兩半 大棗六枚 生薑一兩半 柴胡四兩 물 七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8) 桂枝人參湯: 桂枝四兩 甘草四兩炙 白朮三兩 人參三兩 乾薑三兩 물 九升 에 桂枝를 뺀 나머지 약을 넣고 五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桂枝를 넣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여 一升씩 밤낮으로 하루에 두 번 따뜻하게 복용한다.

(9) 甘草瀉心湯: 甘草四兩炙 黃芩三兩 乾薑三兩 半夏半升 黃連一兩 大棗十二枚 人參三兩 물 一斗에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인 후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10) 生薑瀉心湯: 生薑四兩 甘草三兩炙 人參三兩 乾薑一兩 黃芩三兩 半夏半升 黃連一兩 大棗十二枚 물 一斗에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여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11) 赤石脂禹餘糧湯: 赤石脂一升碎 禹餘糧一斤碎 물 六升到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12) 大柴胡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芍藥三兩 半夏半斤洗 生薑五兩切 枳實四枚炙 大棗十二枚擘 大黃二兩 물 一斗二升到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달여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一升씩 복용한다.

(13) 噎氣: 噎膈이라고도 하며 다만 心胸에 氣가 막혀서 下通하지 못하는 것이다. 噎: 飯窒喉

閉, 목멧 열.

(14) 旋覆花大赭湯: 旋覆花三兩 人參二兩 生薑五兩 半夏半升 大赭石一兩 大棗十二枚 甘草三兩炙 물 一斗에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15) 咳逆: 겨우 목구멍에서 소리만 나왔다가 갑자기 그치고 거렁거렁하게 계속 여러 번 울리나 소리가 短促하여 길지 않으니 딸꾹질과는 다르다.

(16) 四逆湯: 甘草二兩炙 乾薑一兩半 附子一枚生用 물 三升到 넣고 一升二合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

(17) 理中丸: 人參 甘草炙 白朮 乾薑各三兩 곱게 가루내어 계란 노른자정도로 蜜丸을 만든 다음 따뜻한 물에 하나를 개어서 따뜻하게 복용하는데 낮에는 세 번 밤에는 두 번 복용한다.

【國譯】

傷寒論에 '陰에서 發病한 것을 도리어 瀉下하면 痞證이 된다.¹³⁾'라 하였고, 注에 '無熱 惡寒하는 것은 陰에서 發病한 것이다¹⁴⁾'라 하였으니 結胸보다는 가벼운 것이다. 心下가 그득하면서 痛證이 없고 누르면 부드러운 것은 虛邪가 留滯한 까닭에 滿하기만 하고 아프지 않으니 오직 桔梗枳殼湯¹⁵⁾이 최고 좋다. 攻下하고자 할 때는 表證이 풀린 이후에 해야 한다.

痞氣에 대부분 關脈이 沈한 것은 枳實理中丸 半夏瀉心湯을 투여하고, 關脈이 浮한 것은 三黃湯¹⁶⁾으로 瀉肝하고¹⁷⁾, 惡寒한 것은 附子瀉心湯을 투여하고, 이湯을 복용하였으나 痞證이 없어지지 않고 煩渴하며 小便不利하는 것은 五苓散을 투여한다.¹⁸⁾

13) 病發於陰 而反下之 因作痞 (131)

14) 無熱惡寒者 發於陰也 (7)

15) 桔梗枳殼湯 治傷寒痞氣 胸滿欲絕 桔梗 枳殼麩炒去穢 各一兩 右剉如麻豆大 以水二盞 煎至一盞 去滓分二服 『類證活人書卷十八』

16) 大黃黃連瀉心湯이다.

17) 心下痞 按之濡 其脈關上浮者 大黃黃連瀉心湯主之. (154)

18) 心下痞 而復惡寒 汗出者 附子瀉心湯主之. (155)
本以下之 故心下痞 與瀉心湯 痞不解 其人渴而口燥煩 小便不利者 五苓散主之. (156)

11) 銖는 한냥의 1/24

12) 1寸 正方形의 약물을 재는 도구로 약 3ml 정도로 金屬藥인 경우 2g 草木藥인 경우 1g에 해당된다.

下後에 다시 發汗하여 心下痞하면서 惡寒하고 表邪가 풀리지 않았으면 攻痞해서는 안되니 먼저 桂枝湯을 투여하고 表邪가 풀린 다음 攻痞해야 하니 三黃湯을 투여한다.¹⁹⁾

表邪가 풀리지 않았는데 心下가 鬱悶한 것을 支結이라하니 柴胡桂枝湯을 투여하고²⁰⁾, 胸脇滿하면서 微結한 것은 小柴胡湯에 乾薑 牡蠣를 加하여 투여하고, 表證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攻下하여 熱을 끼고 下利하며 心下硬하는 것은 表裏가 모두 病이 든 것이니 桂枝人參湯을 투여한다.²¹⁾

下利에 心下가 단단하면서 그득하고 트림하면서 膿새가 많이 나며 腹鳴하는 것은 甘草瀉心湯 生薑瀉心湯을 투여한다. 治法에는 桂枝人參湯을 통용하나 만약 下利가 그치지 않으면 下焦를 치료해야하니 赤石脂禹餘糧湯을 투여하고, 또한 下利가 그치지 않은 것은 단지 利小便해야 하니 五苓散을 투여한다.

發熱이 풀리지 않고 嘔吐가 잘 나오지 않으며 心下痞硬하는 것은 大柴胡湯을 투여하고, 吐汗 下後에 트림하면서 痞硬한 것은 旋覆花大赭湯을 투여한다.

또한 咳逆하면서 氣虛하는 것은 四逆湯을 투여하고, 胃寒한 것은 먼저 理中丸을 투여하고 뒤에 旋覆大赭湯을 투여한다.

【考察】

‘關脈沈者 三黃湯’에서 앞에서 關脈多沈한 것은 枳實理中丸 半夏瀉心湯을 투여한다 하여 沈脈을 논하였고, 傷寒論의 心下痞 按之濡 其脈關上浮者 大黃黃連瀉心湯主之를 참조하여 볼 때, ‘關脈沈者 三黃湯은 ‘關脈浮者 三黃湯’으로 하는 것이 옳다.

第5章. 腹滿

【原文】

脾爲中央之土니 所以腹滿多屬太陰也라 常病者는

19) 傷寒大下後復發汗 心下痞 惡寒者 表未解也 不可攻痞 當先解表 表解乃可攻痞 解表宜桂枝湯 攻痞宜大黃黃連瀉心湯.(164)

20) 傷寒六七日 發熱 微惡寒 支節煩疼 微嘔 心下支結 外證未去者 柴胡桂枝湯主之. (146)

21) 太陽病 外證未除而數下之 遂協熱而利 利下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者 桂枝人參湯主之. (163)

爲裏實이니 從下之요 時減者는 爲裏虛니 當溫之라 若解表나 內不消하야 非大滿하고 尤生寒熱은 未可下니 是邪全未入腑라 若大滿大實하고 兼有燥屎는 難得之四五日이나 亦爲可下니 謂邪已入腑也라 大抵陽熱爲邪 則腹滿而咽乾하고 陰寒爲邪 則腹滿而吐利 食不下하고 若雖經⁽¹⁾吐下後而腹滿者도 治法又各不同하니 是又不可不知也라

太陽을 誤下하야 因時腹滿而痛은 桂枝加附子湯이요 痛甚은 桂枝加大黃湯이라

陽明에 發熱 腹滿微喘 口苦咽乾하고 或不大便 謔語者는 小柴胡湯이요 噦而小便難은 加茯苓이라

三陽合病하야 腹滿 身重 難以轉側 謔語 口中不仁은 小柴胡湯이요 有汗은 白虎湯⁽²⁾이라

太陰에 腹滿 吐 食不下는 枳桔理中丸⁽³⁾이라

少陰病 六七日에 腹脹滿 不大便是 急下之니 大承氣湯⁽⁴⁾이라

腹滿痛者는 脾不勝水하야 水與氣搏皮肉之間하야 腸中漉漉⁽⁵⁾有聲엔 小半夏茯苓湯 加桂枝라

下利腹滿 身疼痛은 先溫其裏니 四逆湯하고 後攻其表니 桂枝湯이라

發汗後 腹滿은 當溫이니 厚朴半夏生薑人參湯⁽⁶⁾이요 吐後에 腹滿은 當下니 少與調胃承氣湯⁽⁷⁾이요 下後에 腹滿은 宜梔子厚朴湯⁽⁸⁾이라

腹脹滿者는 陰陽不和니 桔梗半夏湯⁽⁹⁾이라

【註釋】

- (1) 經: 歷也, 지날 경.
- (2) 白虎湯: 知母六兩 石膏一斤碎綿裹 甘草炙二兩 粳米六合 물 一斗에 넣고 쌀이 익을 정도로 달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一升씩 복용한다.
- (3) 枳桔理中丸: 理中丸에 殼殼 桔梗을 더한 것이다.
- (4) 大承氣湯: 大黃四兩酒洗 厚朴半斤炙去皮 枳實五枚炙 芒硝三合 물 한말에 厚朴과 枳實을 넣고 五升이 될 때까지 달이고 찌꺼기는 버린 다

음 大黃을 넣고 二升이 될 때까지 달인다. 다시 찌꺼기는 버리고 芒硝를 넣고 약한 불로 한두번 끓어오를 정도 달여서 반으로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5) 瀉瀉(녹록): 줄줄 흐르는 모양.
- (6) 厚朴半夏生薑人參湯: 厚朴半斤炙 生薑半斤 半夏半斤 甘草二兩炙 人參一兩 물 一斗에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一升씩 복용한다.
- (7) 調胃承氣湯: 大黃四兩去皮清酒浸 甘草二兩炙 芒硝半斤 물 三升到 넣고 一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芒硝를 넣은 다음 다시 약한 불로 달여서 조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8) 梔子厚朴湯: 梔子十四枚 枳實四枚 厚朴四兩 물 三升半에 넣고 一升半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두 번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8) 桔梗半夏湯: 桔梗一兩 半夏一兩 枳實半兩 陳橘皮各一兩을 곱게 갈아서 四錢을 물 한 종지에 붓고 생강 세쪽을 넣어 七分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脾는 中央土이므로 腹滿證은 대부분 太陰에 속한다. 계속되는 腹滿은 裏實證이므로 下法을 투여하고, 腹滿이 가끔 줄어드는 것은 裏虛證이니 마땅히 溫法을 써야한다. 만약 表邪를 풀었으나 內氣가 사그러들지 않아 심하게 腹滿하지는 않고 더욱 寒熱이 발생하는 것은 瀉下하면 안되니 이는 邪氣가 완전히 腑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大滿大實하고 아울러 燥屎가 있는 것은 비록 병든지 4,5일이나 또한 瀉下해야 하니 邪氣가 완전히 腑로 들어간 것이다. 大抵 陽熱로 인한 腹滿은 咽乾하고, 陰寒으로 인한 腹滿은 吐利하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며, 또한 비록 吐下後에 腹滿한 것도 治法이 각각 다르니 이것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太陽病을 誤下하여 때로 腹滿하면서 아픈 것은 桂枝加附子湯을 투여하고, 痛證이甚한 것은 桂枝加大黃湯을 투여한다.

陽明病에 發熱 腹滿微喘 口苦咽乾하고 或 不大便 譫語하는 것은 小柴胡湯을 투여하고, 딸꾹질하면서

小便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茯苓을 加하여 투여한다.

三陽合病하여 腹滿 身重하여 돌아눕기 어려우며 譫語하고 입안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小柴胡湯을 투여하고, 땀이 날 경우에는 白虎湯을 투여한다.²²⁾

太陰病에 腹滿 嘔吐하며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枳桔理中丸을 투여한다.

少陰病 6,7일에 腹脹滿하고 大便을 보기 어려운 것은 급히 瀉下해야 하니 大承氣湯을 투여한다.

腹滿痛은 脾가 水氣를 이기지 못하여 水와 氣가 皮肉之間에서 相搏하여 穢속에서 꾸루꾸룩 소리가 나는 것이니 小半夏加茯苓湯²³⁾에 桂枝를 加하여 투여한다.

下利가 있고 腹滿하며 身疼痛하는 것은 먼저 溫裏해야 하니 四逆湯을 투여하고 후에 攻表해야 하니 桂枝湯을 투여한다.

發汗後에 腹滿하는 것은 마땅히 溫法을 써야하니 厚朴生薑甘草半夏人參湯²⁴⁾이요 吐後에 腹滿하는 것은 마땅히 下法을 써야하니 調胃承氣湯을 조금 투여하고, 下後에 腹滿하는 것은 梔子厚朴湯을 투여한다.

腹脹滿은 陰陽이 조화롭지 못한 것이니 桔梗半夏湯²⁵⁾을 투여한다.

【考察】

腹滿에 대하여 裏實과 裏虛로 구분하고 陽熱로 인한 裏實證은 咽痛을 수반하므로 大承氣湯으로, 陰寒으로 인한 裏虛證은 吐利 食不下를 수반하므로 枳桔理中丸으로 치료해야한다. 또한 誤治로 인한 腹滿은 잘못 發汗하면 亡陽하거나 中氣를 손상하므로 厚朴生薑甘草半夏人參湯으로, 잘못 吐法을 쓴 경우에는 氣가 上逆한 까닭이니 調胃承氣湯을 조금씩 투여하

22) 三陽合病 腹滿 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 譫語 遺尿 發汗則譫語 下之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 (219)

23) 小半夏加茯苓湯 治諸嘔噦心下堅痞 膈間有水 痰眩悸者 半夏五兩湯浸洗七遍 白茯苓三兩去皮 右剉如麻豆大 每服半兩水三盞 煎至一盞 稱生薑四錢取自然汁 投藥中更煎兩沸 熱服不拘時 『類證活人書卷十八』

24) 發汗後 腹脹滿者 厚朴生薑甘草半夏人參湯主之. (66)

25) 桔梗半夏湯 治傷寒冷熱不和 心腹痞滿 時發疼痛 順陰陽消痞滿 桔梗一兩微炒細切 半夏一兩薑汁製 枳實半兩麩炒赤用 陳橘皮湯浸去穢焙乾 已上各一兩 爲細末服四錢 水一鍾 薑三片 煎七分 去滓 熱服 『類證活人書卷十八』

고, 잘못 下法을 쓴 경우에는 中氣가 下陷한 까닭이니 梔子厚朴湯으로 치료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第6章. 腹痛

【原文】

邪氣入裏야 與正氣相搏 則爲腹痛이라 蓋陽邪傳裏而痛者는 其痛不常하니 當以辛溫之劑和之요 陰寒在內而痛者 則痛無休時하며 欲作利也니 當以熱劑溫之요 有燥屎宿食爲痛者 則煩而不大便하고 腹滿而痛也니 則後用下劑 經에 曰諸痛爲實이요 痛隨利減이라 하니 此皆爲裏證이나 而所治各不同矣니 又當隨證施治라

傷寒四五일에 腹中痛하고 若轉氣⁽¹⁾不趣小腹者⁽¹⁾는 此欲自利也니 四逆湯이라

少陰에 腹痛 四逆하고 或咳或悸 或小便不利 或瀉利下重은 四逆散⁽²⁾이라

下利清穀하고 脈微欲絶은 通脈四逆湯⁽³⁾이요 腹痛에 小便不利는 眞武湯⁽⁴⁾이라

胸中熱하고 胃中有邪氣야 腹痛 欲嘔吐者는 黃連湯⁽⁵⁾이라

大便實痛者는 關脈實하니 腹滿不大便是 桂枝加大黃湯 大小承氣湯을 選用之라

【校勘】

- 1) 若轉氣不趣小腹者: 『傷寒全生集辯傷寒腹痛例第二十』에 의거 ‘若轉氣下趣小腹者’로 하는 것이 옳다.

【註釋】

- (1) 轉氣: 轉氣는 腸이 서서히 움직여서 대변이 아래로 내려가려 하는 기운이다. 그러므로 小承氣湯을 轉藥이라고 한다.
 (2) 四逆散: 甘草炙 枳實破 柴胡 芍藥各十分을 곱게 갈아서 方寸匕만큼 따뜻한 물로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3) 通脈四逆湯: 甘草二兩炙 乾薑一兩半 附子一枚生用 葱白三兩을 물 三升到 넣고 一升二合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

- (4) 眞武湯: 茯苓三兩 芍藥三兩 生薑三兩 白朮二兩 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 물 八升到 넣고 三升到 되도록 달인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七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5) 黃連湯: 黃連 甘草炙 乾薑 桂枝各三兩 人參二兩 半夏半升 大棗十二枚를 물 一斗에 넣고 六升到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邪氣가 裏部로 들어가 正氣와 더불어 相搏하면 腹痛한다. 대개 陽邪가 裏部로 들어가 발생한 腹痛은 痛證이 계속되지 않으니 마땅히 辛溫한 藥으로 和之하고, 陰寒이 內部에 있어서 발생한 腹痛은 痛證이 지속되고 下利하고자 할 것이니 마땅히 熱劑로 溫之하고, 燥屎나 宿食이 있어서 발생한 腹痛은 煩하면서 大便을 보지 못하고 腹滿하면서 아프니 大便을 瀉下시켜야한다. 經에 ‘모든 痛證은 實證이니 痛證은 下利하면 사라진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裏證이지만 治法이 각각 다르므로 또한 마땅히 證에 따라 施治해야 한다.

傷寒 4,5일에 腹痛하고 轉氣가 아랫배로 내려가려 하는 것은 自利하고자 하는 것이니 四逆湯을 투여한다.

少陰病에 腹痛하고 팔다리가 냉하며 기침하거나 가슴이 뛰거나 小便이 잘 나오지 않거나 下利하여도 뒤가 목직하거나 하는 것은 四逆散을 투여한다.²⁶⁾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고 脈이 微하여 끊어 지려는 것은 通脈四逆湯을 투여하고²⁷⁾, 腹痛하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眞武湯을 투여한다.²⁸⁾

뱃속이 뜨겁고 胃中에 邪氣가 있어서 腹痛하고 嘔吐하려는 것은 黃連湯을 투여한다.²⁹⁾

26) 少陰病 四逆 其人或咳 或悸 或小便不利 或腹中痛 或泄利下重者 四逆散主之. (318)

27) 少陰病 下利清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絶 身反不惡寒 其人面色赤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脈不出者 通脈四逆湯主之. (317)

28)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沉重疼痛 自下利者 此爲有水氣 其人或咳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 眞武湯主之. (316)

29) 傷寒 胸中有熱 胃中有邪氣 腹中痛 欲嘔吐者 黃連湯主之.

大便이 나가지 않는 腹痛은 關脈이 實하니 腹滿不大便하는 것은 桂枝加大黃湯 大承氣湯 小承氣湯을 골라서 투여한다.

【考察】

『傷寒全生集辯傷寒腹痛例 第二十』에서 腹痛에 대하여 陽邪가 裏部로 들어가 발생한 腹痛은 痛證이 계속되지 않으니 마땅히 辛溫한 藥인 桂枝湯, 加減衝和湯, 小建中湯으로 和之하고, 陰寒이 內部에 있어서 발생한 腹痛은 痛證이 지속되고 下利하고자 할 것이니 마땅히 熱劑인 四逆湯, 通脈四逆湯으로 溫之하고, 燥屎나 宿食이 있어서 발생한 腹痛은 煩하면서 大便을 보지 못하고 腹滿하면서 아프니 桂枝加大黃湯 大承氣湯 小承氣湯을 골라서 투여해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第7章. 小腹痛

【原文】

小腹痛者는 臍下滿이 是也라 若胸滿 心下滿 腹滿은 皆爲邪氣而非物이요 今小腹痛은 皆爲有物而非氣라 小便利者는 則爲畜血⁽¹⁾之形이요 小便不利者는 乃是溺澁⁽²⁾之證이니 滲利之劑 宜分兩途라 經에 曰病人素有痞氣 連在臍傍하고 痛引小腹 入陰筋者를 名臍結⁽³⁾也니 死라하니라

太陽病不解하고 熱結膀胱하야 其人如狂 小便急結은 桃仁承氣湯⁽⁴⁾이라

太陽病 六七日에 表證在하며 脈微沈이로래 不結胸하고 發狂 小腹痛滿 小便自利는 抵當湯⁽⁵⁾이라

太陽病에 目黃 脈沈結 小腹痛 小便不利者는 五苓散이라

陰陽易⁽⁶⁾에 小腹痛은 燒裊散⁽⁷⁾이라

病者 手足厥冷은 眞武湯이요 不結胸 小腹痛 按之痛者는 此冷結在膀胱關元이니 宜灸關元穴이라

【註釋】

(1) 畜血: 外感熱病으로 인해 熱邪가 裏部로 들어가

血分에 영향을 주어 瘀血이 내부에 쌓인 病證.

(2) 溺澁(요삼): 小便不利를 말한다.

(3) 臍結: 脇下에 본래 積聚痞塊가 있으면서, 배꼽 곁까지 뻗어있고 少腹이 당기면서 아픈 病證이다.

(4) 桃仁承氣湯: 桃仁五十個去皮尖 桂枝二兩去皮 大黃四兩 芒硝二兩 甘草炙二兩을 물 七升到 넣고 二升半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린 다음 芒硝를 넣고 다시 약한 불로 달여 하루에 세 번 五合씩 따뜻하게 식사 전에 복용한다.

(5) 抵當湯: 水蛭二十個炒 虵蟲三十個炒去翅足 桃仁三十個去皮尖 大黃三兩酒浸을 가루내어 물 五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검은 대변이 나올 때까지 복용한다.

(6) 陰陽易: 大病이 나서 血氣가 회복되지 않고 餘熱이 미진하였을 때 남녀가 合房하여 병든 것을 易이라한다. 남자의 병이 갓나아 血氣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부인과 성교하여 병이 든 것을 陽易이라하고, 여자의 병이 갓나아 血氣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남자와 성교하여 병이 든 것을 陰易이라한다.

(7) 燒裊散: 婦人의 음부에 가까운 속옷을 태워 재로 만들어서 하루에 세 번 方寸匕만큼 복용한다.

【國譯】

小腹痛은 아랫배가 그득한 것이다. 胸滿 心下滿 腹滿은 모두 邪氣만 있고 형체가 없으며 小腹痛은 대부분 형체만 있고 邪氣는 없다. 小腹痛에서 小便이 잘 나오는 것은 畜血證이요 小便이不利하는 것은 溺澁證이니 滲利하는 藥을 쓸 때는 마땅히 두 가지를 구분하여 써야한다. 傷寒論에 ‘환자가 본래 痞氣가 배꼽주위까지 번져 있으면서 아랫배가 당기듯이 아픈 것이 陰筋까지 미치는 것을 臍結이라하니 죽는다.’라고 하였다.

太陽病이 풀리지 않고 熱이 膀胱에 맺혀서 환자가 미친듯하고 小便이 急結한 것은 桃仁承氣湯을 투여한다.³⁰⁾

(173)

30)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 下者愈 其外不解

太陽病 6,7일에 表證이 있고 脈은 微沈하나 오히려 結胸은 없고 發狂하며 아랫배가 단단하면서 부르고 小便이 잘 나오는 것은 抵當湯을 투여한다.³¹⁾

太陽病에 눈이 노랗고 脈이 沈結하며 小腹이 단단하고 小便이 不利한 것은 五苓散을 투여한다.

陰陽易의 小腹痛에는 燒棍散을 투여한다.

少腹滿하고 手足이 厥冷한 것은 眞武湯을 투여하고, 結胸證이 없고 小腹痛하며 눌러서 아픈 것은 冷氣가 膀胱關元에 맺힌 것이니 마땅히 關元穴에 뜬을 뜬다.

【考察】

小腹痛은 蓄血證과 蓄水證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반드시 구별해야하니 蓄血證은 小便에는 이상이 없으나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精神的인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桃核承氣湯, 抵當湯, 抵當丸로 치료하고, 蓄水證은 대변에는 이상이 없으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정신적인 증상은 없고 간혹 表證을 수반하므로 五苓散, 眞武湯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

第8章. 嘔吐

【原文】

嘔者是 聲物俱出者也요 吐者是 無聲而但出物者也니 故로 仲景이 復言乾以別之 則嘔爲有物이 明矣라 乾은 猶空也니 但空嘔而無所出耳라 然이나 嘔吐俱有物出이나 較之輕重 則嘔甚於吐라 蓋表邪傳裏면 裏氣上逆 故로 嘔吐而水穀不下也니 有胃熱이면 脈弦數口舌煩渴이요 有胃寒이면 脈弦遲 逆冷不食 小便利요 有水氣면 先渴後嘔 膈間怔忡⁽¹⁾이요 有膿血이면 喉中腥⁽²⁾ 奔逆上衝하니 不須治之요 嘔膿盡自愈라 是四者는 不可不辯이라 大抵邪半在表半在裏 則多嘔吐하니 及其裏熱而嘔吐者도 亦有之라 故로 經에 曰嘔多면 雖有陽明證이나 不可攻之라하니 爲其氣逆未收斂爲實也라 設或嘔而脈弱이나 小便復利하고 身惟熱而見厥

者 尙未可攻 當先解外 外解已 但少腹急結者 乃可攻之 宜桃核承氣湯. (106)

31) 太陽病 六七日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所以然者 以太陽隨經 瘀熱在裏故也 抵當湯主之. (124)

者는 難治니 以其虛寒甚也라

太陽少陽合病하야 自利而嘔는 黃芩加半夏生薑湯⁽³⁾이라

太陽陽明合病하면 當自利나 若不利하고 但嘔는 葛根加半夏湯⁽⁴⁾이라

傷寒에 胸中熱하고 胃中有邪氣하야 腹痛 氣逆欲嘔吐者는 黃連湯이라

太陽病에 發熱汗出 心下煩鬱 痞硬不利 嘔吐는 大柴胡湯이라

三陽에 發熱而嘔逆은 小柴胡湯이요 嘔而渴者는 猪苓湯⁽⁵⁾ 五苓散이라

先嘔後渴은 此爲欲解니 宜與水解요 先渴後嘔而水停心下는 赤茯苓湯⁽⁶⁾이라

少陰病에 又吐⁽⁷⁾ 但欲寐라가 五六日에 自利而渴 小便色白은 四逆湯 加生薑이라

少氣하고 或咳 或悸 身痛自利는 眞武湯 去附子 加生薑이요 膈上寒飲하야 乾嘔 吐涎沫은 四逆湯이라

若吐利 手足厥冷 煩躁甚者는 吳茱萸湯⁽⁸⁾이라

食穀欲嘔者는 屬陽明也니 上同이요 得湯反劇者는 屬上焦니 橘皮湯⁽⁹⁾ 小柴胡湯이요 似嘔 似噦 似喘하고 心下憤憤⁽¹⁰⁾는 大橘皮湯⁽¹¹⁾이라

汗下後에 關脈遲緩而吐는 爲胃寒이니 理中丸이요 瘧後에 虛煩嘔吐는 竹葉石膏湯⁽¹²⁾ 加生薑汁이요 屢經汗下하야 寒氣膈塞하야 食入卽吐는 乾薑黃芩黃連人參湯⁽¹³⁾이라

汗後에 水藥不入口者하고 四逆은 半夏茯苓湯⁽¹⁴⁾이요 金匱要略에 曰諸嘔吐에 穀不下는 半夏湯⁽¹⁵⁾이라하고 嘔吐에 脈滑數커나 或洪하고 發熱은 茅根湯⁽¹⁶⁾이라

【註釋】

- (1) 怔忡: 重症의 心悸를 가리키며 心忡(심중), 忡悸(중계)라고도 한다.
- (2) 腥: 비릿 성.
- (3) 黃芩加半夏生薑湯: 黃芩三兩 甘草二兩炙 芍藥

二兩 大棗十二枚 半夏半升 生薑三兩을 물 一斗에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하는데 낮에는 두 번 밤에는 한번 복용한다.

- (4) 葛根加半夏湯: 葛根四兩 麻黃三兩 生薑三兩 甘草二兩 芍藥二兩 桂枝二兩 大棗十二枚 半夏半升 水 一斗에 먼저 葛根 麻黃을 넣고 달인 다음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을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이불을 덮어 약간 땀을 낸다.
- (5) 猪苓湯: 猪苓去皮 茯苓 阿膠 滑石碎 澤瀉各一兩 水 四升到 먼저 아교를 빼고 二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린 다음 阿膠를 넣고 녹여서 七合씩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복용한다.
- (6) 赤茯苓湯: 赤茯苓一兩 芎藭半兩 半夏七兩 人參一兩 白朮半兩 陳橘皮一兩 곱게 가루내어 매번 四錢을 복용하는데, 물 한잔 반에 生薑五片을 넣고 七分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하여 아무 때나 調服한다.
- (7) 吐: 心下兀兀欲吐 復不能吐의 약칭이다.
- (8) 吳茱萸湯: 吳茱萸一升 人參三兩 生薑六兩切 大棗十二枚 擘 水 七升到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七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9) 橘皮湯: 橘皮四兩 生薑半斤 水 七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10) 憤憤(케케): 心亂한 모양.
- (11) 大橘皮湯: 陳皮 人參 甘草 生薑을 달여 복용한다.
- (12) 竹葉石膏湯: 竹葉二把 石膏二斤 半夏半升 洗 人參三兩 甘草三兩 粳米半升 麥門冬一升去心을 물 七升到 넣고 二升이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13) 乾薑黃芩黃連人參湯: 乾薑二兩 黃連三兩 黃芩三兩 人參三兩 水 六升到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
- (14) 半夏茯苓湯: 小半夏加茯苓湯이다.
- (15) 半夏湯: 小半夏湯으로 半夏一升 生薑半斤 水

七升到 넣고 一升半이 되도록 달여 두 번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16) 茅根湯: 茅根湯은 茅花湯을 참조하여 만든다. 茅花湯: 茅花 한 다발을 물 三盞에 넣고 一盞으로 줄여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

【國譯】

嘔症은 소리와 음식물을 모두 넘기는 것이요, 吐症은 소리는 안나고 음식물만 넘기는 것이니 仲景이 다시 소리만 있고 음식물을 넘기지 않는 것을 乾嘔라고 하여 구별하였으니 嘔證은 음식물을 넘기는 것이 분명하다. 乾은 空과 같으니 乾嘔는 다만 嘔하기는 하나 음식물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嘔와 吐에 모두 음식물을 넘기나 輕重을 따지자면 嘔가 吐보다 심한 것이다. 대개 表邪가 傳裏하면 裏氣가 上逆하므로 嘔吐하면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데, 胃에 熱이 있으면 脈이 弦數하고 혀와 입이 마르면서 갈증이 있고, 胃가 寒하면 脈이 弦遲하고 사지가 逆冷하며 먹지 못하면서 小便은 自利하고, 水氣가 있으면 먼저 渴證이 있고 뒤에 嘔證이 있으며 가슴이 불안하여 뛰는 것 같고, 膿血이 있으면 목구멍에서 비린내가 나고 氣가 逆上하여 치미는데 嘔逆을 바로 치료하지 말고 膿을 다 토해내면 스스로 낫는다. 네 가지는 반드시 잘 분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으면 대부분 嘔吐하는데, 裏熱로 인한 嘔吐도 있다. 傷寒論에 ‘嘔證이 심하면 비록 陽明證이 있으나 攻下하지 말라³²⁾’고 하였으니 氣가 수렴되지 못하고 逆하여 아직 완전한 腑實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嘔證이 있으면서 脈이 弱하나 小便은 自利하고 腹에는 熱이 있으나 厥證이 나타나는 것은 치료하기 어려우니 虛寒이 심하기 때문이다.

太陽少陽이 合病하여 自利하면서 嘔證이 있는 것은 黃芩加半夏生薑湯을 투여한다.³³⁾

太陽陽明이 合病하면 마땅히 自利하나 만약 不利하고 嘔證만 있는 것은 葛根加半夏湯을 투여한다.³⁴⁾

傷寒에 胸中이 熱하고 胃中에 邪氣가 있어서 腹痛

32) 傷寒嘔多 雖有陽明證 不可攻之. (204)
 33) 太陽與少陽合病 自下利者 與黃芩湯 若嘔者 黃芩加半夏生薑湯主之. (172)
 34) 太陽與陽明合病者 必自下利 葛根湯主之.(32)
 太陽與陽明合病 不下利 但嘔者 葛根加半夏湯主之. (33)

하고 氣逆하여 嘔吐하고자 하는 것은 黃連湯을 투여한다.

太陽病에 發熱汗出하고 心下가 막힌 듯이 답답하며 단단한 것이 만저지면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嘔吐하는 것은 大柴胡湯을 투여한다.³⁵⁾

三陽病에 發熱하면서 嘔逆하는 것은 小柴胡湯을 투여하고, 嘔證이 있으면서 渴證이 있는 것은 猪苓湯五苓散을 투여한다.

먼저 嘔證이 있고 뒤에 渴證이 있는 것은 낮고자 하는 것이니 마땅히 물을 조금 주면 풀리고, 먼저 渴證이 있고 뒤에 嘔證이 있는 것은 水氣가 心下에 쌓여 있는 것이니 赤茯苓湯³⁶⁾을 투여한다.

少陰病에 토하려하나 토하지 못하고 잠만 자려하다가 5,6일에 自利하면서 渴症이 있고 小便色이 白色인 것은 四逆湯에 生薑을 加하여 투여한다.

기운이 없고 或 기침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며 身痛自利하는 것은 眞武湯에 附子를 去하고 生薑을 加하여 투여하고, 膈上에 寒飲이 있어서 乾嘔하고 嘔을 흘리는 것은 四逆湯을 투여한다.³⁷⁾

嘔吐 下利하고 手足이 厥冷하며 煩躁가 심한 것은 吳茱萸湯을 투여한다.³⁸⁾

음식을 먹고 구토하고자 하는 것은 陽明에 속하니 吳茱萸湯을 투여하고, 이 처방을 복용하고 도리어 심해지는 것은 上焦에 속하니 橘皮湯³⁹⁾ 小柴胡湯을 투여하고, 嘔證 같기도 하고 트림 같기도 하고 喘證 같기도 하면서 心下가 미식거리는 것은 大橘皮湯⁴⁰⁾을

투여한다.

汗下後에 關脈이 遲緩하고 吐하는 것은 胃寒이니 理中丸을 투여하고, 병이 나은 후에 虛煩하고 嘔吐하는 것은 竹葉石膏湯에 生薑汁을 加하여 투여하고, 여러 번 汗下하여 寒氣가 胸膈에서 막혀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하는 것은 乾薑黃芩黃連人蔘湯을 투여한다.⁴¹⁾

發汗後에 물이나 藥을 마시지 못하고 四肢가 逆冷한 것은 半夏茯苓湯⁴²⁾을 투여하고, 『金匱要略』에 '모든 嘔吐에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半夏湯⁴³⁾을 투여한다.' 하였고, 嘔吐에 脈이 滑數하거나 或 洪하고 發熱하는 것은 茅根湯⁴⁴⁾을 투여한다.

【考察】

嘔症은 소리와 음식물을 모두 넘기는 것이고, 吐症은 소리는 나지 않고 음식물만 넘기는 것이며, 乾嘔는 소리만 있고 음식물을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구별하였다.

대개 嘔吐는 表邪가 傳裏하여 裏氣가 上逆하므로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逆上하는 것으로, 胃熱嘔吐는 脈이 弦數하고 혀와 입이 마르면서 갈증이 있으므로 黃連湯 大柴胡湯 등으로 치료하고, 胃寒嘔吐는 脈이 弦遲하고 사지가 逆冷하며 먹지 못하면서 小便은 自利하므로 理中丸 四逆湯 乾薑黃芩黃連人蔘湯 등으로 치료하고, 水氣로 인한 嘔吐는 먼저 渴證이 있고 뒤에 嘔證이 있으며 가슴이 불안하여 뛰는 것 같으니 赤茯苓湯 眞武湯으로 치료하고, 膿血로 인한 嘔吐는 목구멍에서 비린내가 나고 氣가 逆上하여 치미는데 嘔逆을 바로 치료하지 말고 膿을 다 토해내면 스스로 낫는다고 제시 하였다.

第9章. 乾嘔

35) 傷寒發熱 汗出不解 心中痞硬 嘔吐而下利者 大柴胡湯 主之. (165)

36) 赤茯苓湯 治傷寒嘔噦心下滿 胸膈間宿有停水 頭眩心悸 赤茯苓一兩 芎藭半兩 半夏七兩湯洗遍去滑 人蔘一兩去蘆頭 白朮半兩 陳橘皮一兩湯浸去白穢焙 右件藥搗羅爲粗末 每服四錢 水一盞半 生薑五片 煎至七分 去渣溫服 不拘時候 『類證活人書卷十八』

37) 少陰病 飲食入口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 手足寒 脈弦遲者 此胸中實 不可下也 當吐之 若膈上有寒飲 乾嘔者 不可吐也 當溫之 宜四逆湯. (324)

38) 少陰病 吐利 手足逆冷 煩躁欲死者 吳茱萸湯主之. (309)

39) 乾嘔噦 若手足厥者 橘皮湯主之 橘皮湯方 橘皮四兩 生薑半斤 上二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溫服一升 下咽即愈 『金匱要略嘔吐噦下利病脈證治第十七』

40) 大橘皮湯 治似噦似喘似嘔 心下憤憤無奈者 陳皮(上) 人蔘(中) 甘草(下) 水薑煎服 『傷寒全生集辨傷寒嘔吐例 第二十七』

41) 傷寒本自寒下 醫復吐下之 寒格 更逆吐下 若食入口即吐 乾薑黃連黃芩人蔘湯主之. (359)

42) 半夏茯苓湯은 小半夏加茯苓湯이다.

43) 諸嘔吐 穀不得下者 小半夏湯主之 小半夏湯方 半夏一升 生薑半斤 上二味 以水七升 煮取一升半 分溫再服 『金匱要略嘔吐噦下利病脈證治第十七』

44) 茅根湯은 茅花湯을 참조하여 만든다. 茅花湯治衄血不止 茅花一大把 水三盞 煎膿汁一盞 分作二服即差 如無花以根代之 『類證活人書卷十八』

【原文】

乾嘔者 嘔而無物出也 大抵熱在胃脘 與穀氣併하면 熱氣上熏하여 心下痞結하니 則有此證이라 太陽에 汗出 乾嘔는 桂枝湯이니 主自汗也요 少陰에 下利 乾嘔는 薑附湯⁽¹⁾이니 主下利也요 厥陰에 吐沫 乾嘔는 吳茱萸湯이니 主涎沫也니 邪去 則吐自止矣라

若有水氣二證하니 又當以表裏別之라 傷寒에 表不解而 心下水氣하여 乾嘔 身熱微喘하고 或自利는 小青龍湯⁽²⁾主之요 不發熱 不惡寒 肋痛 咳而利 乾嘔者는 十棗湯⁽³⁾下之라

自汗頭痛 乾嘔는 桂枝湯이라

少陰에 下利 乾嘔 脈微는 白通湯⁽⁴⁾이요 下利不止 乾嘔而煩 厥逆無脈은 白通加豬膽汁湯이라

惡寒外熱 脈微欲絕 乾嘔도 亦屬少陰이니 四逆湯이라

乾嘔 吐涎沫 頭痛은 吳茱萸湯이요 得此湯 反劇者는 與小柴胡湯이요 乾嘔自利는 黃芩加半夏薑湯⁽¹⁾이라

太陽中風은 陽浮陰弱하니 自汗惡風寒 發熱鼻鳴 乾嘔者는 桂枝湯이요 乾嘔 噦 若手足厥者는 橘皮湯⁽⁵⁾이라

【校勘】

- 1) 黃芩加半夏薑湯: 原本에는 黃芩湯 半夏薑湯으로 되어 있는데, 『金匱要略嘔吐噦下利病脈證治第十七』의 내용에 의거 黃芩加半夏薑湯으로 고친다.

【註釋】

- (1) 薑附湯: 乾薑附子湯이다. 乾薑附子湯: 乾薑一兩 附子一枚 生用去皮破八片을 물 三升에 넣고 一升이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한번에 복용한다.
- (2) 小青龍湯: 麻黃 芍藥 細辛 乾薑 甘草炙 桂枝各三兩 五味子半斤 半夏半斤湯洗 물 一斗에 먼저 麻黃을 달여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을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3) 十棗湯: 芫花熬 甘遂 大戟 大棗十枚擘 等分 各의 藥물을 따로 갈아서 물 一升半에 먼저 大棗를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나머지 약을 섞어서 긴장한 사람은 2돈씩 허약한 사람은 반 돈씩 여기에 넣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4) 白通湯: 蔥白四莖 乾薑一兩 附子一枚 生用 물 三升에 넣고 一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두 번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5) 橘皮湯: 大橘皮湯으로 橘皮一兩半 甘草半兩炙 人蔘一分 竹茹半升 生薑四片 棗子一枚 물 두 되에 넣고 한 잔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두 번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乾嘔는 嘔證이 있으나 食物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熱이 胃脘에 생겨서 穀氣와 더불어 아우르면 熱氣가 위로 熏蒸하여 心下痞結하니 乾嘔가 나타난다. 太陽病에 汗出 乾嘔하는 것은 桂枝湯을 투여하니 自汗에 중점을 두고, 少陰病에 下利 乾嘔하는 것은 薑附湯을 투여하니 下利에 중점을 두고, 厥陰病에 吐涎沫 乾嘔하는 것은 吳茱萸湯을 투여하니 涎沫에 중점을 두니 邪氣가 없어지면 嘔吐가 스스로 멈춘다.

또한 水氣로 인한 두 證이 있으니 마땅히 表裏로 구별해야 한다. 傷寒에 表邪가 풀리지 않고 心下에 水氣가 있어서 乾嘔 身熱微喘하고 或自利하는 것은 小青龍湯을 투여하고,⁴⁵⁾ 發熱과 惡寒이 없고 옆구리가 아프며 기침하면서 下利하고 乾嘔하는 것은 十棗湯으로 瀉下한다.⁴⁶⁾

自汗頭痛하고 乾嘔하는 것은 桂枝湯을 투여한다.

少陰病에 下利 乾嘔하고 脈이 微한 것은 白通湯을 투여하고, 下利가 그치지 않고 乾嘔하면서 心煩하며 厥逆하고 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白通加豬膽汁湯을 투여한다.⁴⁷⁾

45) 傷寒 表不解 心下水氣 乾嘔 發熱而咳 或渴 或利 或噎 或小便不利 小腹滿 或喘者 小青龍湯主之. (40)
 46) 太陽中風 下利 嘔逆 表解者 乃可攻之 其人皴皴汗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 短氣 汗出不惡寒者 此表解裏未和也 十棗湯主之. (152)
 47) 少陰病 下利 脈微者 與白通湯 利不止 厥逆無脈 乾嘔 煩者 白通加豬膽汁湯主之 服湯 脈暴出者死 微續者生. (315)

惡寒하고 外部에 熱이 나며 脈이 微하여 끊어지러 하고 乾嘔하는 것도 또한 少陰에 속하니 四逆湯을 투여한다.

乾嘔 吐涎沫 頭痛하는 것은 吳茱萸湯을 투여하고⁴⁸⁾, 吳茱萸湯을 복용하고 도리어 심해지는 것은 小柴胡湯을 투여하고⁴⁹⁾, 乾嘔 自利하는 것은 黃芩加半夏生薑湯을 투여한다.⁵⁰⁾

太陽中風은 陽脈은 浮하고 陰脈은 弱하니 自汗 惡風寒 發熱 鼻鳴 乾嘔하는 것은 桂枝湯을 투여하고, 乾嘔하고 트림하며 手足厥한 것은 橘皮湯⁵¹⁾을 투여한다.

【考察】

‘乾嘔自利 黃芩湯 半夏生薑湯’은 『金匱要略』에 따라 乾嘔自利 黃芩加半夏生薑湯으로 하는 것이 옳다.

乾嘔에서 太陽病 乾嘔에 桂枝湯을 사용한 것은 自汗을, 少陰病 乾嘔에 薑附湯을 사용한 것은 溫溫欲吐하는 乾嘔를, 厥陰病 乾嘔에 吳茱萸湯을 사용한 것은 吐涎沫에 중점이 있다.

水氣로 인한 乾嘔는 表裏로 구별해야 하는데, 傷寒에 表邪가 풀리지 않고 心下에 水氣가 있어서 乾嘔 身熱微喘하고 或自利하는 것은 小青龍湯을 투여하고, 發熱과 惡寒이 없고 옆구리가 아프며 기침하면서 下利하고 乾嘔하는 것은 十棗湯으로 瀉下한다고 하였다.

第10章. 咳逆 嘔

【原文】

夫咳逆者는 俗謂之吃忒⁽¹⁾이 是也라 纔⁽²⁾發聲於喉間則遽止하고 口兀兀然⁽³⁾續數聲이나 然而短促不長하니 古人謂之嘔者는 非也라 嘔與乾嘔無異하니 但其聲濁惡而長이나 然이나 皆有聲而無物이니 病至於嘔

則危하야 難治矣라 大抵餉⁽⁴⁾近於嘔이니 餉者는 但胸間氣塞不得下通이요 嘔則惡濁之聲達於外矣니 蓋因胃氣本虛한대 汗下太過커나 或復飲水하야 水寒相搏하야 虛逆而成이라 經에 曰陽脈浮 則爲氣餉이라하고 又曰脈滑 則爲嘔이니 此爲醫咎요 責虛取實之過也라 하니 又有熱氣擁鬱하야 上下氣不得通而嘔者는 輕則和解之 通利之하고 甚則溫散之라 設若不尿 腹滿而嘔者와 咳逆 脈散而無倫者는 雖神醫라도 不能措手니 與傷寒咳而氣逆者로 又不同也라 若將吃忒에 茶於嘔與咳而氣逆 則誤人多矣니 臨病之際에 宜明辯之라

咳嗽하고 大便小는 與大承氣湯下之니 蓋由熱氣衝膈肝肺故耳라 若便軟은 瀉心湯이니 胃氣虛而衝脈逆也라 若脈散者는 不治요 咳逆潮熱은 小柴胡加橘皮生薑湯이라

厥逆不止는 烏荅湯⁽⁵⁾이요 有寒者는 羌活附子散⁽⁶⁾이라

傷寒에 表不解하고 心下有水氣하야 乾嘔 發熱而咳 或餉은 小青龍湯 去麻黃 加附子라

寸口脈浮大를 醫反下之하야 爲逆한대 又飲冷水하야 令汗大出하고 水得寒氣하야 冷必相搏하면 其人卽餉하니 豆蔻湯⁽⁷⁾이라

嘔而腹滿 大便不利는 先宜半夏生薑湯⁽⁸⁾하고 次用承氣湯이요 小便不利는 猪荅湯이라

陽明中風에 脈浮弦 小便難 潮熱而嘔은 小柴胡湯 加荻荅이라

嘔嘔에 手足逆冷은 小橘皮湯이요 若胸滿虛煩은 大橘皮湯이요 胃氣寒者는 吳茱萸理中湯 溫中湯이라

金匱要略에 曰嘔逆者는 橘皮竹茹湯⁽⁹⁾主之라하고 嘔不止者는 橘皮乾薑湯⁽¹⁰⁾ 半夏生薑湯 退陰散子⁽¹¹⁾를 宜消息⁽¹²⁾用之라

溫病에 熱未除한대 重被暴寒入胃하야 蘊結不散하면 變嘔하니 梓皮飲子⁽¹³⁾요 溫病有熱에 飲水暴冷하면 作嘔하니 茅根葛根湯⁽¹⁴⁾이요 溫病에 胃冷하면 變嘔하니 茅根橘皮湯⁽¹⁵⁾이요 溫病에 有熱 飲水暴冷은 枇杷茅根湯⁽¹⁶⁾이라

48) 乾嘔吐涎沫 頭痛者 吳茱萸湯主之.(378)

49) 食穀欲嘔者 屬陽明也 吳茱萸湯主之 得湯反劇者 屬上焦也. (243)

50) 乾嘔而利者 黃芩加半夏生薑湯主之 『金匱要略嘔吐嘔下利病脈證治第十七』

51) 大橘皮湯 橘皮一兩反去白 甘草半兩炙 人蔘一分 竹茹半升 右剉如麻豆大 每服五錢 生薑四片 棗子一枚 以水二鍾 煎取一盞 去滓 分二服 『類證活人書卷十六』

【註釋】

- (1) 吃忒(홀특): 기침할 때 나는 의성어. ※吃: 웃는소리 홀. 忒: 의심할 특.
- (2) 纒: 겨우 채.
- (3) 口兀口兀然(울울연): 거렁거렁하는 소리.
- (4) 餽: 噎과 같은 것으로 氣가 食道에 阻滯하여 먹지 못하는 것. ※餽: 食滯, 밥체할 열.
- (5) 厥逆不止 烏荑湯: 아마도 錯簡이나 衍文인 같다.
- (6) 羌活附子散: 羌活 附子炮 茴香微炒 各半兩 木香 乾薑炮 各大棗許大 搗게 가루 내어 매번 二錢씩 복용하는데, 물 一盞에 소금 한줌을 넣고 달인 뜨거운 물로 한번 복용하면 낫는다.
- (7) 豆蔻湯: 白豆蔻 官桂 木香 人參 各 5分 京三稜 神糶 各 1냥 陳皮 麥蘖 各7分 5分 乾薑 甘草 各 2分 5分을 生薑 세 쪽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 (8) 半夏生薑湯: 生薑二兩切 半夏洗一兩一分 水 二盞에 넣고 八分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
- (9) 橘皮竹茹湯: 橘皮二升 竹茹二升 大棗三十枚 人參一兩 生薑半斤 甘草五兩 水 一斗에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10) 橘皮乾薑湯: 橘皮 通草 乾薑炮 桂心各二兩人參一兩 甘草炙二兩 삼씨 정도 嚙아 매번 四錢씩 복용하는데, 물 一盞에 넣고 六分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복용한다.
- (11) 退陰散子: 川烏 乾薑各等分을 거칠게 가루 내어 노릇노릇하게 볶은 다음 다시 곱게 갈아 一錢씩 복용하는데, 물 한 잔에 소금 한 줌을 넣고 반잔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 (12) 消息: 많고 적음을 헤아려 늘이고 줄여서 적당하게 조절한다는 뜻이다.
- (13) 梓皮飲子: 아마도 錯簡이나 衍文인 같다.
- (14) 茅根葛根湯: 茅根乾葛湯이다. 茅根 乾葛 半夏 薑汁을 달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 (15) 茅根橘皮湯: 茅根 橘皮 半夏 薑汁을 달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 (16) 枇杷茅根湯: 枇杷 茅根을 물 三盞에 넣고 一盞이 되도록 달여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

【國譯】

무릇 咳逆은 세속에서 말하는 吃忒(홀특)이다. 겨우 목구멍에서 소리만 나왔다가 갑자기 그치고 거렁거렁하게 계속 여러 번 울리나 소리가 短促하여 길지 않으니 古人들이 말하는 딸꾹질은 아니다. 트림은 乾嘔와 다르지 않으니 다만 그 소리가 탁하고 긴데, 그러나 모두 소리만 있고 뱉는 것이 없으니 病이 들었는데 트림하면 危急하여 치료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噎膈은 트림과 가까우니 噎膈은 다만 心膈에 氣가 막혀서 下通하지 못하는 것이요, 트림은 탁한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 대개 胃氣가 본래 虛한데 태과하게 汗下하거나 或 물을 마셔서 水氣와 寒이 相搏하여 虛逆하여 생기는 것이다. 傷寒論에 ‘陽脈이 浮하면 氣餽이 된다.’⁵²⁾하였고, 또한 ‘脈이 滑하면 噦이 되니 이는 의사의 잘못이니 虛로 보고 치료해야 하는데 實로 보아 치료한 허물이다.’⁵³⁾하였으니, 또한 熱氣가 울체되어 上下로 氣가 通하지 않아 噦하는 것은 輕證이면 和解 通利하고 심하면 溫散해야 한다. 설령 오줌을 누지 못하고 腹滿하면서 噦하는 것과 咳逆하고 脈이 흘러져 차례가 없는 것은 비록 神醫라도 능히 손을 쓸 수 없으니 傷寒病의 咳而氣逆과 또한 같지 않다. 만약 吃忒을 치료함에 噦과 咳而氣逆과 혼동하면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 많을 것이니 病을 진찰할 때에 더욱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

咳嗽하고 大便을 조금 보는 것은 大承氣湯으로 瀉下해야 하니 熱氣가 膈 肝 肺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변이 무른 것은 瀉心湯을 투여하니 胃氣가 虛하면서 衝脈이 逆했기 때문이다. 만약 脈이 散한 것은 치료할 수 없고, 咳逆 潮熱하는 것은 小柴胡加橘皮生薑湯을 투여한다.

厥逆이 그치지 않는 것은 烏荑湯을 투여하고, 寒氣가 있는 것은 羌活附子散⁵⁴⁾을 투여한다.

52) 足陽脈浮 浮脈爲虛 浮虛相搏 故令氣餽 言胃氣虛竭也 『傷寒論辨脈法』

53) 脈滑則爲噦 此爲醫咎 責虛取實 守空迫血 脈浮鼻中燥者 必衄也 『傷寒論辨脈法』

54) 羌活附子散 治欬逆 羌活 附子炮 茴香微炒 各半兩 木香 乾

傷寒에 表邪가 풀리지 않고 心下에 水氣가 있어서 乾嘔하고 發熱하면서 咳하며 或 噎膈하는 것은 小青龍湯에 麻黃을 去하고 附子를 加하여 투여한다.

寸口脈이 浮大한 것을 도리어 의사가 瀉下하여 逆證이 되었는데 다시 냉수를 들이켜서 汗出이 심하고 水氣가 寒氣를 얻어 冷氣와 相搏하면 바로 噎膈하니 豆蔻湯을 투여한다.

트림하면서 腹滿하고 大便이 不利한 것은 먼저 半夏生薑湯을 투여하고 다음에 承氣湯을 투여하고, 小便이 不利한 것은 猪苓湯을 투여한다.

陽明中風에 脈이 浮弦하고 小便을 보기 어려우며 潮熱이 있으면서 트림하는 것은 小柴胡湯에 茯苓을 加하여 투여한다.

嘔噦에 手足이 逆冷한 것은 小橘皮湯을 투여하고, 胸滿 虛煩한 것은 大橘皮湯을 투여하고, 胃氣가 寒한 것은 吳茱萸理中湯 溫中湯을 투여한다.

『金匱要略』에 ‘噦逆은 橘皮竹茹湯⁵⁵⁾을 투여한다.’ 하였고, 噦이 그치지 않는 것은 橘皮乾薑湯⁵⁶⁾ 半夏生薑湯⁵⁷⁾ 退陰散⁵⁸⁾를 마땅히 參작하여 투여한다.

溫病에 熱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거듭 暴寒을 맞아 胃로 들어가 쌓여서 出어지지 않으면 嘔로 변하니 枳皮飲子를 투여하고, 溫病에 熱이 있어서 渴하기 차가운 물을 복용하면 渴질하니 茅根葛根湯을 투여하고, 溫病에 胃冷하면 渴질하니 茅根橘皮湯⁵⁹⁾을 투여하고 溫病에 熱이 있어서 渴하기 차가운 물을 복용한 것은 枳杷茅根湯을 투여한다.

【考察】

薑炮 各大棗許大 右爲細末 每服二錢 水一盞 鹽一捻 同煎一二十沸 帶熱服 一服卽止 『類證活人書卷十八』
 55) 橘皮竹茹湯方 橘皮二升 竹茹二升 大棗三十枚 人蔘一兩 生薑半斤 甘草五兩 上六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溫服一升 日三服 『金匱要略嘔吐噦下利病脈證治第十七』
 56) 橘皮乾薑湯 治噦 橘皮 通草 乾薑炮 桂心 各二兩 人蔘一兩 甘草炙二兩 右剉如麻豆大 每服四錢 水一盞 煎至六分 去滓 溫服 日進三服 『類證活人書卷十八』
 57) 半夏生薑湯 治噦欲死 生薑二兩切 半夏洗一兩一分 右以水二盞 煎至八分 去粗分二服 『類證活人書卷十八』
 58) 退陰散子 治陰毒傷寒 手足逆冷 脈沈細 頭痛腰重 連進三服 小小傷冷 每服一字入正元散內 同煎入鹽一捻 陰毒傷寒 咳逆 煎一服 細細熱呷便止 川烏 乾薑 各等分 右爲粗末 炒令轉色 放冷再搗爲細末 每服一錢 水一盞鹽一捻 煎半盞 去滓 溫服 『類證活人書卷十六』
 59) 『傷寒全生集辨傷寒噦例 噦氣例 第二十九』

『傷寒全生集辨傷寒逆例第一』에 “嘔逆은 胃中 實熱을 잘못 瀉下시켜 발생되거나 胃中痰飲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寒涼한 藥을 많이 服用하여 발생되거나 胃中虛冷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그 氣가 모두 胃中에서 일어나 胸膈의 사이에 이르러 嘔忒이 되는 것이다.

胃熱을 잘못 瀉下시켜 大便不通이 된 것은 承氣湯으로 瀉下시키고 便軟者는 瀉心湯 爲主로 治療하고 潮熱이 있으면 小柴胡湯을 주고 胃가 虛하여 熱이 있으면 橘皮竹茹湯으로 治療하고 痰飲이 있으면 橘皮半夏生薑湯에 茯苓, 枳實, 陳皮, 桔梗을 加味하여 주고 만약 胃가 冷하면 橘皮乾薑湯으로 治療하고 甚하면 丁附理中湯에 吳茱萸를 加味하여 주고 만약 寒涼藥을 너무 많이 服用하여 胃寒으로 嘔忒이 발생되면 丁附理中湯에 吳茱萸, 木香, 薑汁을 加味하여 주니 무릇 그 氣는 臍下에서부터 胸膈사이로 직접 올라가니 嘔忒은 이러한 陰症嘔忒이다. 그 病은 胃에 있지 않고 그 病은 下虛로 陰火가 안으로 潛伏된 것이니 或 寒藥을 잘못 服用하여 下焦를 차게 만들면 그 相火가 上沖하여 마침내 胸中에 모여 嘔忒이 되는 것이다. 病人이 煩躁하여 스스로 熱을 甚하게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손으로 그 皮膚에 만졌을 때 차다면 이것은 뿌리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火로 어지럽게 出어져 熱이 된 것이니 實熱이 아니다. 이에 水가 極하면 도리어 火같이 되며 陰症이 陽처럼 되는 것이니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여 藥을 잘못 服用하면 渴하자마자 즉시 죽을 것이니 마땅히 羌活附子湯에 官桂, 人蔘, 木香, 陳皮, 半夏, 砂仁을 加味하여 急히 그 下焦를 데워서 그 陽을 회복하여 陰火를 下降시켜야 嘔忒이 그치는 것이다.

만약 陰證으로 胃寒하여 嘔忒이 그치지 않으면 外用으로 乳香硫黃散을 사용하여 嗅法을 쓰고 內用으로 丁香柿蒂散을 服用시키며 다시 期門, 中脘, 氣海, 關元에 뜸을 灸야 하니 이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다. 다만 手足이 따뜻하고 脈이 重한 者는 살게 되고 또 瘀血이 생겨서 有形之物이 그 사이를 막으면 비록 柿蒂라도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상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第11章. 下利

【原文】

傷寒表邪傳裏하야 裏虛助熱 則自下利요 又有不應下而便攻之하야 內虛協熱도 亦爲下利하니 要當別其陰陽이라 三陽下利는 身熱하고 太陰下利는 手足溫하고 少陰厥陰下利는 身涼無熱하니 此大概也라 自利清穀 不渴 小便色白 微寒 厥冷 惡寒은 凡此皆寒이요 渴 欲飲水 溺色如常 泄下赤黃 發熱後重은 凡此皆熱이라 蓋因風邪入胃하야 水來侮土 故로 令暴下니 或溫 或攻 或清下焦 或利小便하야 隨證施治니 但不宜發汗耳라 邪氣內攻한대 復泄其津液하면 胃氣轉虛하야 必成脹滿이라 若夫下利諺語而目直視와 下利厥躁不得眠과 下利發熱 厥而自汗과 下利厥冷 無脈 灸之不溫而脈不出과 下利日數十行 其脈反實은 皆爲不治之證이니 五者最忌者也라

太陽陽明合病하야 下利 頭目痛 鼻乾 脈浮는 葛根湯⁽¹⁾이라

太陽少陽合病하야 下利 頭痛胸滿 乾嘔 脈浮弦은 黃芩湯⁽²⁾이요 嘔甚에 加半夏 生薑이라

少陽陽明合病하야 下利 身熱 胸脇滿 乾嘔 往來寒熱하고 脈長大而弦은 弦而爲負⁽³⁾니 負者死요 壯大不弦爲順이니 大承氣湯下之라 滑而散은 爲有宿食이니 亦從下之라

太陽病未解 而欲下之하야 遂協熱而利 心下痞硬 表裏不解者는 桂枝人參湯이라

太陰에 自利不渴은 四逆湯 理中湯 朮附湯⁽⁴⁾이라

少陰下利에 不渴하고 腎虛하야 飲水自救하며 脈微者는 白通湯이요 厥逆無脈者는 白通加豬膽汁湯 四逆湯이요 少陰下利에 渴而嘔 心煩不得眠者는 豬苓湯이요 少陰下利에 咽痛胸滿 心煩者는 豬膚湯⁽⁵⁾이라

自利清水 心下必痛 口中乾燥는 此不可溫이요 宜用下니 大承氣湯이라

傷寒을 醫下之하야 續得下利清穀 身痛者는 急當救裏니 宜四逆湯이요 清便⁽⁶⁾自調면 急當救表니 宜桂枝湯이라

胃熱하면 利白腹垢하고 臍下必熱하며 便下垢膩赤黃 或渴은 黃芩湯 白頭翁⁽⁷⁾ 柏皮湯⁽⁸⁾이요 通用之엔 白虎湯이라

胃寒에 利白鴨澹⁽⁹⁾하고 臍下必冷하며 腹脹滿 便中清白 或清穀은 四逆湯 理中湯이라 寒毒下利에 面戴陽⁽¹⁰⁾者는 下虛也라 下利諺語는 有燥屎也니 脈不微細는 小承氣湯이라

尺脈弦 腸鳴泄利 腹痛者는 冷痛也니 小建中湯⁽¹¹⁾이요 三部⁽¹²⁾平 心硬而下利者는 腸胃積結也라 宜下之니 大承氣湯이라

下利 脈滑은 當有所去하야 下之乃愈니 大承氣湯이요 下利 脈大者는 虛也니 以其強下之故也요 設脈浮革하고 因以腸鳴者는 當歸四逆湯⁽¹³⁾이라

下利後에 至其年月復發者는 以病不盡故也라 宜下之니 大承氣湯이라

【註釋】

- (1) 葛根湯: 葛根四兩 麻黃三兩 芍藥二兩 生薑三兩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 桂枝二兩 水 一斗에 먼저 麻黃 葛根을 넣고 달여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을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2) 黃芩湯: 黃芩三兩 甘草二兩炙 芍藥二兩 大棗十二枚擘 水 一斗에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낮에는 두 번 밤에는 한번 복용한다.
- (3) 負: 여기에서는 少陽의 邪氣가 胃腑의 正氣를 相克한 것이다. ※負: 敗也, 질 부.
- (4) 朮附湯: 桂枝加附子湯에서 桂枝를 빼고 白朮四兩을 가한 것이다.
- (5) 豬膚湯: 豬膚一斤 水 一斗에 넣고 五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白蜜一升과 白粉五合을 가하고 약한 불에서 냄새가 나도록 저으면 서 졸여 여섯 번으로 나눠 따뜻하게 복용한다.
- (6) 清便: 清은 圜과 통용하므로 圜便은 大便을 말한다.
- (7) 白頭翁: 내용상 白頭翁湯이다.

- (8) 柏皮湯: 梔子柏皮湯을 말한다.
- (9) 鴨漚: 대변이 오리똥처럼 묽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
- (10) 戴陽: 얼굴에 해를 이고 있는 것처럼 광대뼈 부위가 담홍색을 띠고 이것이 일정하지 않게 돌아다니며 아래에는 眞寒있고 위에는 假熱이 있는 危重한 증후이다.
- (11) 小建中湯: 桂枝三兩 甘草三兩炙 大棗十二枚 芍藥六兩 生薑二兩半 膠飴一升을 물 七升到 膠飴(갱엿)를 제외한 나머지 약을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다려 찌꺼기는 버린 다음 膠飴를 넣고 약한 불로 녹을 정도로 다시 달여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一升씩 복용한다.
- (12) 三部: 三部脈으로 寸關尺을 말한다.
- (13) 當歸四逆湯: 當歸三兩 桂枝三兩 芍藥三兩 細辛二兩 大棗二十五個 甘草二兩炙 通草二兩을 물 八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傷寒에 表邪가 裏部로 轉變하여 裏氣는 虛한데 邪熱이 더해지면 自下利하고, 또한 응당 瀉下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바로 攻下하여 內氣가 虛한데다 邪熱이 끼어 든 것도 또한 下利하니 마땅히 陰陽을 구별해야 한다. 三陽病의 下利는 몸에 熱이 나고, 太陰病의 下利는 手足만 따뜻하고, 少陰 厥陰病의 下利는 몸이 차갑고 熱이 없으니 이것이 그 大綱이다. 소화되지 않은 곡식을 自利하고 渴證이 없으며 小便色이 희고 몸이 약간 차며 사지가 厥冷하고 惡寒하는 것은 모두 寒證이요, 渴證으로 물을 마시고자 하며 小便은 보통이나 赤黃色의 오줌을 누며 發熱하고 後重하는 것은 모두 熱證이다. 대개 風邪가 胃로 들어가서 水氣가 土인 脾胃를 疇박하는 까닭에 갑자기 下利하니 溫法, 攻法, 下焦의 熱을 내리거나, 利小便 등의 방법으로 證에 따라 치료해야하지만 절대로 發汗시켜서는 안 된다. 邪氣가 內部를 침범하였는데 다시 津液을 發泄하면 胃氣가 虛해져 반드시 脹滿하게 된다. 또한 下利 譫語하면서 直視하는 것, 下利 厥逆하며 躁證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 下利 發熱하고 厥證이 있으면

서 自汗하는 것, 下利 厥冷하고 脈이 나타나지 않아 땀을 띠도 따뜻해지지 않고 脈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하루에 10여 번씩 下利하는데 脈이 도리어 實한 것은 모두 不治證이니 이 다섯 가지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다.

太陽陽明이 合病하여 下利하면서 눈과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마르며 脈이 浮하는 것은 葛根湯을 투여한다.⁶⁰⁾

太陽少陽이 合病하여 下利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건구역질하고 脈이 浮弦한 것은 黃芩湯을 투여하고, 嘔證이 심한 것은 半夏生薑을 가하여 투여한다.⁶¹⁾

少陽陽明이 合病하여 下利하면서 몸에 熱이 나고 胸脇이 그득하며 건구역질하고 寒熱이 왕래하고 脈이 長大하면서 弦한 것은 弦은 相克이니 죽게 되고, 脈이 壯大하고 弦하지 않으면 順이니 大承氣湯으로 瀉下한다. 脈이 滯하면서 散하는 것은 宿食이 있는 것이니 또한 瀉下시켜야 한다.

太陽病이 풀리지 않았는데 여러 번 瀉下시켜 表部에는 熱이 있는데 下利를 하고 心下가 그득하고 단단하며 表裏가 모두 풀리지 않은 것은 桂枝人參湯을 투여한다.⁶²⁾

太陰病에 自利하나 갈증이 없는 것은 四逆湯 理中湯 朮附湯을 투여한다.

少陰病에 下利하고 渴證이 없고 腎虛하여 물을 마시고자하며 脈微한 것은 白通湯을 투여하고, 사지가 냉하고 脈이 잡히지 않는 것은 白通加豬膽汁湯 四逆湯을 투여하고⁶³⁾, 少陰病 下利에 渴證이 있으면서 嘔證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豬苓湯을 투여하고⁶⁴⁾, 少陰病 下利에 목구멍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心煩하는 것은 豬膚湯을 투여

60) 太陽與陽明合病者 必自下利 葛根湯主之. (32)
 太陽與陽明合病 不下利 但嘔者 葛根加半夏湯主之. (33)
 61) 太陽與少陽合病 自下利者 與黃芩湯 若嘔者 黃芩加半夏生薑湯主之. (172)
 62) 太陽病 外證未除而數下之 遂協熱而利 利下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者 桂枝人參湯主之. (163)
 63) 少陰病 下利 脈微者 與白通湯 利不止 厥逆無脈 乾嘔 煩者 白通加豬膽汁湯主之 服湯 脈暴出者死 微續者生. (315)
 64) 少陰病 下利六七日 咳而嘔 渴 心煩 不得眠者 豬苓湯主之. (319)

한다.⁶⁵⁾

멀건 푸른똥을 自利하고 心下가 아프며 입이 乾燥하는 것은 濇法을 쓰지 말고 마땅히 下法을 써야하니 大承氣湯을 투여한다.⁶⁶⁾

傷寒을 의사가 잘못 下法을 써서 소화되지 않은 곡식을 下利하고 온몸이 아픈 것은 마땅히 급히 救裏해야 하니 四逆湯을 투여하고, 大便이 조절되면 마땅히 급히 救表해야 하니 桂枝湯을 투여한다.⁶⁷⁾

위에 熱이 있으면 下利가 白色이나 냄새가 심하고 반드시 臍下가 뜨거우며 大便이 赤黃色이며 미끄럽고 냄새가 나며 或 渴證이 있는 것은 黃芩湯 白頭翁湯 柏皮湯을 골라 투여하고, 白虎湯을 통용한다.

위가 虛寒하면 下利가 白色이면서 오리똥처럼 묽고 반드시 臍下가冷하며 배가 脹滿하고 大便이 묽고 희며 或 소화되지 않은 곡식을 下利하는 것은 四逆湯 理中湯을 투여한다. 寒毒下利로 얼굴에 戴陽證이 나타나는 것은 下虛이다. 下利하면서 譫語하는 것은 燥屎가 있는 것이니 脈이 微細하지 않으면 小承氣湯을 투여한다. 尺脈이 弦하고 腸鳴泄利하며 腹痛하는 것은 冷痛이니 小建中湯을 투여하고, 三部脈이 모두 이상이 없으나 가슴이 뻣히듯이 아프고 下利하는 것은 腸胃에 熱邪가 쌓인 것이므로 마땅히 瀉下해야 하니 大承氣湯을 투여한다.

下利하면서 脈이 滑한 것은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이 있으므로 瀉下하면 나오니 大承氣湯을 투여하고, 下利하면서 脈이 大한 것은 虛이니 역지로 瀉下시켰기 때문이요, 가령 脈이 浮革하고 腸鳴하는 것은 當歸四逆湯을 투여한다.

下利가 나온 후에 이듬해나 다음달 같은 날에 다시 發病하는 것은 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大承氣湯으로 瀉下시킨다.

【考察】

三陽病의 下利는 太陽陽明 太陽少陽 三陽合病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協熱利의 형태를 띠고 있

니 葛根湯 黃芩湯 桂枝人參湯 白虎加人參湯으로 치료한다. 하지만 三陰證의 경우는 太陰下利는 脾의 升清作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므로 手足 溫의 증상이 겸해있어서 小建中湯 朮附湯 四逆湯의 類로 치료해야하고, 少陰下利는 元陽이 허쇠하여 발생하는 것과 虛熱이 亢盛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四逆湯 白通湯과 豬膚湯으로 치료해야 하며, 厥陰下利는 正氣의 손상이 심하여 裏寒外熱하는 경우에는 通脈四逆湯 當歸四逆湯 등으로 치료해야하니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 下痢症은 正氣의 손상을 쉽게 초래하니 下利 譫語하면서 直視하는 것, 下利 厥逆하며 躁證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 下利 發熱하고 厥證이 있으면서 自汗하는 것, 下利 厥冷하고 脈이 나타나지 않아 땀을 떠도 따뜻해지지 않고 脈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하루에 10여 번씩 下利하는데 脈이 도리어 實한 것, 이 다섯 가지는 不治症이니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第12章. 便膿血

【原文】

衝脈¹⁾爲血之海요 卽血室也니 男女均有此血氣하고 均有此衝脈이라 衝之得熱하면 血必妄行하니 在男子 則爲下血譫語하고 在婦人 則爲寒熱似瘧하니 皆爲熱入血室²⁾이요 逼血下行 則血熱而利也라 挾血之脈은 乍溢乍數거나 或伏或沈하고 血熱交併 則脈洪盛이니 大抵男多於左手하고 女多於右手見之라 又有陰寒爲病하야 下利便膿血者는 乃下焦虛寒이요 腸胃堅固로대 清濁不分而利는 下膿血也니 二者는 一爲挾血이요 一爲陰寒이니 臨病에 宜精別焉이라

太陽病不解하고 熱結膀胱하야 其人如狂이나 而血自下者는 愈니 不愈면 用桂枝湯이라 明理論³⁾에 抵當湯이라

陽明病에 下血譫語하고 胸脇滿如結胸하며 夜則見鬼는 此爲熱入血室이니 小柴胡湯이라

少陰病에 下利便膿血者는 桃花湯⁴⁾이라

腹滿身熱 下如魚腦를 曰濕毒이니 桃花湯 地榆散

⁵⁾ 黃連阿膠湯⁶⁾이라

65) 少陰病 下利 咽痛 胸滿 心煩者 豬膚湯主之. (310)

66) 少陰病 自利清水 色純青 心下必痛 口乾燥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321)

67) 傷寒 醫下之 續得下利清穀不止 身疼者 急當救裏 後身疼 清便自調者 急當救表 救裏宜四逆湯 救表宜桂枝湯. (91)

下後에 無表裏證 脈數하고 不解散하야 消穀易饑 하며 多日不大便은 此爲瘀血이니 桃仁承氣湯 抵當湯

(7) 或小柴胡湯 加桃仁 大黃이라

下焦畜血하야 其人如狂 小腹急結 小便必利는 抵當丸(8)이라

【註釋】

- (1) 衝脈: 寄經八脈의 하나로 胞中에서 시작하여 脊裏를 순행하는 經絡之海이다. 떠올라 외부로 순행하는 것은 복부를 따라 상행하여 인후에 모이고 다시 갈라져 口脣에絡한다.
- (2) 熱入血室: 부녀자가 月經期 혹은 産後에 外邪를 감수하여 邪熱이 虛한 틈을 타서 血室에 침입하여 血과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病證이다.
- (3) 明理論: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을 말한다.
- (4) 桃花湯: 赤石脂一斤(반은 그대로 쓰고 반은 가루를 쓴다) 乾薑一兩 粳米一升 물 七升到 넣고 쌀이 익을 정도 까지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이것 七合에 赤石脂末 方寸匕를 타서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복용한다.
- (5) 地榆散: 地榆一兩 犀角屑一兩 黃連一兩 茜根一兩 黃芩一兩 梔子仁半兩 곱게 갈아서 매번 四錢씩 복용하는데 물 한 잔에 薤白 五寸을 넣고 六分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아무 때나 따뜻하게 복용한다.
- (6) 黃連阿膠湯: 黃連四兩 黃芩一兩 芍藥二兩 鷄子黃二枚 阿膠三兩 먼저 물 五升到 세 藥을 二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아교를 넣어 녹이고 약간 식으면 鷄子黃을 넣어 저어서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七合씩 복용한다.
- (7) 抵當湯: 水蛭二十個炒 虵蟲三十個炒去翅足 桃仁三十個去皮尖 大黃三兩酒浸 粉末하여 물 五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8) 抵當丸: 水蛭二十個 虵蟲二十五個 桃仁二十個 大黃三兩 절구로 빻아서 나누어 四個의 丸을 만들고 물 一升으로 一丸을 끓여서 七合을 취해, 이를 복용한다. 다음날에는 마땅히 下血될 것이나 만약 下血되지 아니하거든 다시 복용

한다.

【國譯】

衝脈은 血海이고 즉 血室이니 男女에 모두 血氣가 있고 衝脈이 있다. 衝脈이 熱邪를 받으면 반드시 血이 妄行하니 男子는 下血하면서 譫語하고, 婦人은 瘧疾처럼 寒熱이 往來하니 모두 熱入血室證이요, 熱邪로 竅막 받은 血이 下行하면 膿血을 下利한다. 血分에 영향을 받은 脈은 잠깐 澁하거나 잠깐 數하고 或 伏하거나 或 沈하고, 血과 熱이 서로 아우르면 脈이 洪盛하니 일반적으로 남자는 대부분 左手에 많이 나타나고, 여자는 대부분 右手에 많이 나타난다. 또한 陰寒으로 인한 病에 膿血을 下利하는 것은 下焦가 虛寒한 것이요, 腸胃가 튼튼한데도 清濁이 나뉘지 않아 下利하는 것은 膿血을 下利하는 것이니, 하나는 血分에 邪熱이 침범한 下利이고 하나는 陰寒으로 인한 下利이니 진찰할 때에 정확하게 구별해야한다.

太陽病이 풀리지 않고 熱이 膀胱에 맺혀서 환자가 미친 듯한 것은 血便을 下利하면 나오니 낮지 않으면 桂枝湯을 투여한다.⁶⁸⁾ 『傷寒明理論』에는 抵當湯을 투여한다고 하였다.

陽明病에 下血하면서 譫語하고 結胸처럼 胸脇이 그득하며 밤에 귀신이 보이는 것은 熱入血室이니 小柴胡湯을 투여한다.

少陰病에 膿血을 下利하는 것은 桃花湯을 투여한다.⁶⁹⁾

腹滿하고 몸에 熱이 나며 魚腦처럼 물게 下利하는 것을 濕毒이라하니 桃花湯 地榆散⁷⁰⁾ 黃連阿膠湯을 투여한다.

下法을 쓴 後에 表證과 裏證이 없으나 脈數하며 邪氣가 흩어지지 않아 너무 소화가 잘되고 쉽게 배가고프며 몇일 동안 大便을 보지 못한 것은 瘀血이니 桃仁承氣湯 抵當湯 或 小柴胡湯에 桃仁 大黃을 가하

68)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 下者愈 其外不解者 尙未可攻 當先解外 外解已 但少腹急結者 乃可攻之 宜桃核承氣湯. (106)

69) 少陰病 下利便膿血者 桃花湯主之 (306)

70) 地榆散 治傷寒熱毒不解 日晚卽壯熱 腹痛便利膿血 竝宜治之 地榆一兩切 犀角屑一兩 黃連一兩去鬚微炒 茜根一兩 黃芩一兩 梔子仁半兩 右件藥搗爲粗末 每服四錢 以水一盞 入薤白五寸 煎至六分 去滓 不計時候溫服 『類證活人書卷十八』

여 투여한다.

下焦에 畜血하여 환자가 정신이 미친 듯하고 아랫배가 멎힌 듯이 당기나 小便이 잘 나오는 것은 抵當丸을 투여한다.

【考察】

男女에 모두 衝脈이 있고 衝脈이 熱邪를 받으면 血이 妄行하여 男子는 下血하면서 譫語하고, 婦人은 癥瘕처럼 寒熱이 往來하는 것을 모두 熱入血室證으로 보고 있으니 남녀 모두에게 熱入血室證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참고할 만하다.

또한 熱結膀胱證에 血便을 쏟아내면 낮고, 낮지 않으면 桂枝湯을 쓴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의 治方이 桂枝湯이 아니라, 表邪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을 강조하여 桂枝湯으로 먼저 表邪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解表한 다음에 다른 治方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熱結膀胱 其人如狂의 治方을 『傷寒論』에서는 桃核承氣湯을 제시하고 있고, 『傷寒明理論』에는 抵當湯을 제시하고 있으니 모두 합당하다.

第13章. 四逆

【原文】

手足不溫을 謂之四逆이라 邪在表 則手足熱하고 邪在表裏之間 則手足溫하고 至於邪傳少陰 則手足有逆冷之證이니 與厥陰又相遠也라 然이나 自熱而至溫과 自溫而至厥은 乃傳經⁽¹⁾之邪니 輕則四逆散이요 重則承氣湯으로 下之하니 非若得病하여 手足便逆而不溫者를 四逆湯으로 溫之니 則爲陰經受邪而陽氣不足也라 其或吐利煩躁 厥逆踈臥는 皆屬少陰하니 又爲不治之證이라

少陰病에 四逆하고 其人或咳 或悸 或小便不利 或腹中痛滿 或裏下重은 竝四逆散이요 初病以來 厥冷四逆은 卽四逆湯이라

手足逆冷이나 大便閉하고 小便赤하며 或大便黑色하고 脈沈而滑은 此爲陽證이니 以白虎湯이요 甚者는 大承氣湯이라

【註釋】

(1) 傳經: 外部의 邪氣가 陽經을 침범하여 轉變하는 次序에 따라 陰經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 直中

【國譯】

手足이 따뜻하지 않고 冷한 것이 四逆이다. 邪氣가 表에 있으면 手足에 熱이 나고 半表半裏에 있으면 手足이 溫하고 邪氣가 少陰으로 傳變하면 手足이 逆冷하니 厥陰病의 厥證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手足이 熱하다가 溫한 것과 溫하다가 厥逆하는 것은 傳經한 邪氣이니 가벼우면 四逆散을 투여하고, 심하면 承氣湯으로 瀉下해야 한다. 이는 '처음에 병을 얻어 手足이 갑자기 厥逆하면서 따뜻하지 않는 것을 四逆湯으로 溫之하는 것' 즉 陰經이 직접 邪氣를 받아 陽氣가 不足한 것과는 다르다. 或 嘔吐 下利하면서 煩躁症이 있고 四肢가 逆冷하여 오그리고 자는 것은 모두 少陰에 속하니 또한 不治證이다.

少陰病에 수족이 冷하고 或 기침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하거나 腹痛과 腹滿이 있거나 대변을 보려 해도 뒤가 목직한 것은 모두 四逆散을 투여하고, 처음 병이 들 때부터 수족이 逆冷한 것은 四逆湯을 투여한다.

手足이 逆冷하고 大便이 나오지 않으며 小便色이 붉고 或 大便色이 黑色이며 脈이 沈하면서 滑한 것은 陽證이니 白虎湯을 투여하고, 심하면 大承氣湯을 투여한다.

【考察】

四逆이 나타나는 원인과 치법을 살펴보면 元陽이 虛衰하여 正氣가 四末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四逆湯으로 溫之해야 하며, 氣가 울체하여 氣機活動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四逆散으로 소통시켜야하고, 내부에 邪熱이 壅滯하여 陽氣가 밖으로 布散하지 못하는 眞熱假寒일 경우에는 白虎湯 大承氣湯으로 瀉下시켜야 한다.

第14章. 厥逆

【原文】

陽氣伏藏하고 陰氣越出하여 陰陽不相順接이 所以 厥也라 若先熱而後厥者는 乃熱邪伏於內也요 先厥而

後熱者는 乃陰退而陽得復也요 若始得病便厥者는 是陽不足而陰勝也라

熱伏於內者는 其脈沈而數하고 狂言發渴하고 露手揚衣하고 躁不得眠하며 或大便閉요 初便厥者는 其脈沈遲而弱하고 醒醒⁽¹⁾而靜하고 惡寒引衣하며 或下利清穀也라 其或惡寒踰臥와 煩躁下利와 不知人은 皆爲惡候 故로 曰逆也라

先發熱而後厥者는 揚手擲足⁽²⁾하며 煩躁飲水하며 畏熱頭汗하며 大便閉하며 小便赤하며 怫鬱⁽³⁾昏悸⁽⁴⁾하니 當下失下면 血氣不通이라 所以謂熱甚則厥甚者 此也니 大柴胡湯 小承氣를 選而用之라

初病便厥하야 足攣惡寒하며 引衣自蓋하며 不渴하며 大小便自利하며 默默而惶惶⁽⁵⁾은 諸四逆選用之라

傷寒에 厥而心下悸者는 宜先治悸에 茯苓桂甘湯⁽⁶⁾하고 後治厥에 四逆湯이요 吐利厥逆 煩躁欲死者는 吳茱萸湯 當歸四逆湯하고 仍灸太谿라

【註釋】

- (1) 醒醒: 정신이 맑은 것.
- (2) 揚手擲足: 수족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모양. 擲: 掉也, 흔들 척.
- (3) 怫鬱(불울):鬱結이 풀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듯이 맺힌 것.
- (4) 昏悸(혼계): 정신이 흐릿해져 주위를 알아보지 못하며 가슴이 뛰는 모양.
- (5) 惶惶(황황): 몹시 당황해 하는 모양.
- (6) 茯苓桂甘湯: 茯苓甘草湯이다. 茯苓二兩 桂枝二兩 甘草一兩炙 生薑三兩切 물 四升到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세 번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陽氣는 안으로 잠복하고 陰氣는 밖으로 넘쳐 나와 陰陽이 서로 順接하지 않는 것이 厥하는 이유이다. 만약 먼저 發熱하고 뒤에 厥逆하는 것은 熱邪가 안에서 잠복한 것이요, 먼저 厥逆하고 뒤에 發熱하는 것은 陰이 물러나고 陽이 회복되는 것이요, 만약 처음에 病을 얻었을 때 바로 厥證이 있는 것은 陽이 不足

하고 陰이 우세한 것이다.

熱이 안에서 잠복한 것은 脈이 沈하면서 數하며 미친 듯 소리를 지르고 渴證이 있으며 옷을 벗어 손발을 내놓고 다니고 煩躁하여 잠을 자지 못하며 或大便이 막히게 되고, 처음에 바로 厥證이 생긴 것은 脈이 沈遲하면서 弱하고 정신이 맑으나 高요하며 惡寒하여 옷을 입고자하고 或 소화되지 않은 곡식을 下利한다. 惡寒하면서 몸을 움츠리고 자는 것과, 煩躁하면서 下利하는 것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모두 나쁜 證候이니 逆證이다.

먼저 發熱하고 뒤에 厥逆하는 것은 손발을 휘젓고 다니고 煩躁하여 물을 마시고자 하며 熱을 싫어하고 머리에만 땀이 나며 大便은 막히고 小便은 赤色이며 熱氣가 울체하여 昏悸하니 마땅히 瀉下해야 하는데 瀉下하지 않으면 血氣가 不通하게 된다. 이른바 ‘熱이甚하면 厥이甚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大柴胡湯 小承氣湯을 골라 투여한다.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 바로 厥逆하고 수족이 경련하며 惡寒하여 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자하며 渴證이 없고 大小便이 自利하며 묵묵하면서도 몹시 당황하는 것은 四逆湯의 類를 골라 투여한다.

傷寒에 厥하면서 心下悸하는 것은 마땅히 먼저 茯苓桂甘湯으로 悸를 다스리고⁷¹⁾ 뒤에 四逆湯으로 厥을 다스려야 하고, 吐利厥逆하며 煩躁하여 죽을 것 같은 것은 吳茱萸湯 當歸四逆湯을 투여하고 바로 太谿에 뜸을 뜬다.

【考察】

陽氣는 안으로 잠복하고 陰氣는 밖으로 넘쳐 나와 陰陽이 서로 順接하지 않는 것을 厥逆이라고 하여 단지 手足이 따뜻하지 않고 冷한 것을 四逆이라 한 것과 구별하여 논하였다.

厥逆의 證治에 대하여 熱邪가 안에서 잠복하여 발생한 熱厥은 먼저 發熱하고 뒤에 厥逆하는 것이므로 大柴胡湯 小承氣湯으로 치료하고, 먼저 厥逆하고 뒤에 發熱하는 것은 陰이 물러나고 陽이 회복되는 것이므로 나오려는 것이며, 처음부터 바로 厥證이 있는 것은 陽이 不足하고 陰이 우세한 것이므로 四逆湯 등

71) 傷寒 厥而心下悸 宜先治水 當服茯苓甘草湯 却治其厥 不爾 水漬入胃 必作利也. (356)

으로 치료한다.

第15章. 不大便

【原文】

不大便是爲大便難也니 皆因發汗 利小便하여 耗其津液하여 以致腸胃乾燥 而轉屬陽明裏者 多矣라 其小便自數者 則爲津液偏勝 故로 大便亦難也라 若下若發汗하여 小便數 大便硬者는 與承氣湯和之니 謂津液內竭也라 又有不宜便下者하니 至於脈浮 脈虛 惡寒은 此尤帶表邪니 乃不可下요 其嘔吐는 爲邪未入腑하니 雖有陽明證이니 不可攻之라 小便清者는 知其邪不在裏하고 仍在表也요 大便難 小便少 不轉矢氣는 此內無燥屎也니 但初硬後溏耳라

陽明脈浮를 或經發汗하여 小便自利 不大便者는 亦津液內竭이니 宜蜜導煎通之라 經에 曰其脈浮而數하며 能食하며 不大便是 此爲實이니 名曰陽結⁽¹⁾也라 宜大柴胡湯이니 若不了了면 得屎而解라하니라 其脈沈而遲하며 不能食하며 身體重하며 大便反難은 名曰陰結⁽²⁾也니 宜金液丹⁽³⁾이라

傷寒에 不大便六七日하야 頭痛有熱者는 小承氣湯이라

病人이 不大便六七日하야 遑臍煩躁 發作有時者는 此爲屎硬不得大便이니 小承氣湯이라

夫病陽明者를 下之則硬과 汗多極한대 發其汗 則亦硬은 竝小柴胡湯이라

陽明病에 脇下硬滿 不大便而嘔 舌上白胎는 小柴胡湯이라

若發汗 若利小便하야 津液內竭하야 大便自難者는 不可攻之요 無陰陽에 強大便者하야 下之면 必清穀脹滿하니 竝用蜜導煎⁽⁴⁾이라

【註釋】

- (1) 陽結: 腸胃에 實熱燥火가 쌓여서 발생하는 便秘를 말한다.
- (2) 陰結: 腸胃가 陰寒하여 秘結되거나 精血이 메말라 大腸이 건조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便秘를 말한다.

秘를 말한다.

- (3) 金液丹: 細末해서 바람에 날려 고운 것만을 취한 硫黃을 자기로 만든 盒에 채우고 赤石脂를 물로 개어서 틈새를 밀봉하고 다시 소금을 섞은 진흙으로 그 위를 밀봉한다. 먼저 작은 항아리를 땅속에 묻고 물을 가득 부은 다음 그 속에 盒을 넣고 진흙으로 입구를 막는다. 약한 불에 7일 동안 밤낮으로 충분히 달군 후 식으면 꺼내어 다시 곱게 細末한다. 매회 한냥씩 썰서 떡으로 만들어 끓는 물에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제거한 후 梧桐子大의 丸으로 빚는다. 매번 30丸씩 많게는 100丸을 공복에 미음으로 복용한다.
- (4) 蜜導煎: 蜜七合을 銅器에 붓고 약한 불로 저으면서 졸여서 엷처럼 약간 엉기기 시작하여 환으로 만들 정도가 되면 손으로 끝이 뾰족한 손가락만하게 만들어 항문에 넣고 막고 있다가 대변을 보려할 때 손을 떼어 관찰하는 방법이다.

【國譯】

不大便是 大便을 보기 어려운 것이니 모두 發汗이나 利小便으로 津液을 소모시켜 腸胃가 乾燥하게 되는 것이니 陽明 裏部로 轉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小便을 자주 보면 津液이 빠져나가는 까닭에 大便을 보기가 어렵다. 下法을 쓰거나 發汗하여 小便이 자주 나오며 大便이 굳어진 것은 承氣湯으로 和之해야 하니 津液이 안에서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땅히 바로 瀉下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있으니 脈浮 脈虛 惡寒하면 아직 表邪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下法을 쓸 수 없고, 嘔吐하면 아직 邪氣가 腑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 비록 陽明證이 있더라도 攻下해서는 안된다. 小便이 淸長한 것은 邪氣가 裏部에 있지 않고 表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大便을 보기 어려우나 小便이 적고 矢氣가 돌아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은 내부에 燥屎가 없는 것이니 다만 대변이 처음은 단단하나 끝은 무를 것이다.

陽明病에 脈이 浮한 것을 發汗시켜 小便이 自利하고 大便을 보지 못하는 것은 또한 津液이 內竭한 것이니 마땅히 蜜煎導法으로 通하게 해야 한다.⁷²⁾ 傷寒

論에 ‘脈이 浮하면서 數하고 能食하며 大便을 보지 못하는 것은 實이니 陽結이다. 마땅히 大柴胡湯을 투여하고, 만약 上쾌하지 않으면 大便을 보면 풀린다.’라 하였고, ‘脈이 沈하면서 遲하고 不能食하며 몸이 무겁게 느껴지나 도리어 大便을 보기 어려운 것은 陰結이다.’라 하였으니 마땅히 金液丹⁷²⁾을 투여한다.

傷寒에 6,7일 동안 大便을 보지 못하여 頭痛이 있고 熱이 나는 것은 小承氣湯을 투여한다.

환자가 6,7일 동안 大便을 보지 못하여 배꼽주위가 아프고 때로 煩躁證이 발작하는 것은 燥屎가 굳어서 大便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小承氣湯을 투여한다.

陽明病을 下之하여 大便이 굳은 것과 汗出過多한데 發汗하여 大便이 굳은 것은 小柴胡湯을 투여한다.

陽明病에 脇下가 硬滿하고 大便을 보지 못하면서 嘔證이 있고 舌上에 白苔가 끼는 것은 小柴胡湯을 투여한다.

發汗하거나 利小便하여 津液이 內渴하여 저절로 大便을 보기 어려운 것은 攻下하면 안되고, 陰證이나 陽證이 없는데 억지로 大便을 보게 하여 瀉下시키면 반드시 소화가 되지 않고 脹滿하니 모두 蜜導煎을 투여한다.

IV. 考察 및 結論

이상과 같이 陶華의 『傷寒明理續論』 陽毒등에 대한 관련 內容을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이상과 같이 陶華의 『傷寒明理續論』 陽毒등에 대한 관련 內容을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72) 陽明病 自汗出 若發汗 小便自利者 此爲津液內竭 雖硬不可攻之 當須自欲大便 宜蜜煎導而通之 若木瓜根及大豬膽汁皆可爲導. (233)

73) 金液丹 硫黃 淨揀去砂石 研細飛過 用瓷盒子盛 以水和赤石脂封口 以鹽泥固濟 曬乾 地內先埋一小罐子 盛水令滿 安盆子在上 用泥固濟訖 慢火養七日七夜 候足 加頂火一斤 煨候冷取出 研爲細末 右藥末一兩用蒸餅一兩 湯浸握去水 搜爲圓 如梧桐子大 每服三十圓 多至百圓 溫米飲下 空心服之 『太平惠民和劑局方·卷之五』

1. 陽毒은 面赤 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하므로 五日이면 치료할 수 있으나 七日이 되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고 證에 따라 黑奴丸, 白虎加人參湯, 陽毒升麻湯, 三黃石膏湯으로 치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結胸證은 傷寒中風證을 誤下하여 발생한 것으로 大結胸, 小結胸, 寒實結胸, 熱實結胸, 水結胸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小結胸에는 小陷胸湯, 熱實結胸에는 大陷胸湯, 寒實結胸에는 三物白散 枳實理中丸, 水結胸에는 小半夏茯苓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3. 痞에서 ‘關脈沈者 三黃湯’에서 앞에서 關脈多沈한 것은 枳實理中丸 半夏瀉心湯을 투여한다 하여 沈脈을 논하였고, 傷寒論의 心下痞 按之濡 其脈關上浮者 大黃連瀉心湯主之를 참조하여 볼 때, ‘關脈沈者 三黃湯’은 ‘關脈浮者 三黃湯’으로 하는 것이 옳다.

4. 腹滿에 대하여 裏實과 裏虛로 구분하고 陽熱로 인한 裏實證은 咽痛을 수반하므로 大承氣湯으로, 陰寒으로 인한 裏虛證은 吐利 食不下를 수반하므로 枳桔理中丸으로 치료해야한다. 또한 誤治로 인한 腹滿은 잘못 發汗하면 亡陽하거나 中氣를 손상하므로 厚朴生薑甘草半夏人參湯으로, 잘못 吐法을 쓴 경우에는 氣가 上逆한 까닭이니 調胃承氣湯을 조금씩 투여하고, 잘못 下法을 쓴 경우에는 中氣가 下陷한 까닭이니 梔子厚朴湯으로 치료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5. 腹痛에 대하여 陽邪가 裏部로 들어가 발생한 腹痛은 痛證이 계속되지 않으니 마땅히 辛溫한 藥인 桂枝湯, 加減衝和湯, 小建中湯으로 和之하고, 陰寒이 內部에 있어서 발생한 腹痛은 痛證이 지속되고 下利하고자 할 것이니 마땅히 熱劑인 四逆湯, 通脈四逆湯으로 溫之하고, 燥屎나 宿食이 있어서 발생한 腹痛은 煩하면서 大便을 보지 못하고 腹滿하면서 아프니 桂枝加大黃湯 大承氣湯 小承氣湯을 골라서 투여해야한다고 제시 하였다.

6. 小腹滿은 蓄血證과 蓄水證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반드시 구별해야하니 蓄血證은 小便에는 이상이

없으나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精神的인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桃核承氣湯, 抵當湯, 抵當丸으로 치료하고, 蓄水證은 대변에는 이상이 없으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정신적인 증상은 없고 간혹 表證을 수반하므로 五苓散, 眞武湯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

7. 嘔吐는 表邪가 傳裏하여 裏氣가 上逆하므로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逆上하는 것으로, 胃熱嘔吐는 脈이 弦數하고 혀와 입이 마르면서 갈증이 있으므로 黃連湯, 大柴胡湯 등으로 치료하고, 胃寒嘔吐는 脈이 弦遲하고 사지가 逆冷하며 먹지 못하면서 小便은 自利하므로 理中丸, 四逆湯, 乾薑黃芩黃連人參湯 등으로 치료하고, 水氣로 인한 嘔吐는 먼저 渴證이 있고 뒤에 嘔證이 있으며 가슴이 불안하여 뛰는 것 같으니 赤茯苓湯, 眞武湯으로 치료하고, 膿血로 인한 嘔吐는 목구멍에서 비린내가 나고 氣가 逆上하여 치미는데 嘔逆을 바로 치료하지 말고 膿을 다 토해내면 스스로 낫는다고 제시 하였다.

8. 乾嘔에서 太陽病 乾嘔에 桂枝湯을 사용한 것은 自汗을, 少陰病 乾嘔에 薑附湯을 사용한 것은 溫溫欲吐하는 乾嘔를, 厥陰病 乾嘔에 吳茱萸湯을 사용한 것은 吐涎沫에 중점이 있다. 水氣로 인한 乾嘔는 表裏로 구별해야 하는데, 傷寒에 表邪가 풀리지 않고 心下에 水氣가 있어서 乾嘔 身熱微喘하고 或自利하는 것은 小青龍湯을 투여하고, 發熱과 惡寒이 없고 옆구리가 아프며 기침하면서 下利하고 乾嘔하는 것은 十棗湯으로 瀉下한다고 하였다.

9. 三陽病의 下利는 太陽陽明, 太陽少陽, 三陽合病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協熱利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 葛根湯, 黃芩湯, 桂枝人參湯, 白虎加人參湯으로 치료한다. 하지만 三陰證의 경우는 太陰下利는 脾의 升清作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므로 手足溫의 증상이 겸해있어서 小建中湯, 朮附湯, 四逆湯의 類로 치료해야하고, 少陰下利는 元陽이 허쇠하여 발생하는 것과 虛熱이 亢盛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四逆湯, 白通湯과 豬膚湯으로 치

료 해야하며, 厥陰下利는 正氣의 손상이 심하여 裏寒外熱하는 경우에는 通脈四逆湯, 當歸四逆湯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

10. 熱結膀胱證에 血便을 쏟아내면 낫고, 낫지 않으면 桂枝湯을 쓴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太陽病 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의 治方이 桂枝湯이 아니라, 表邪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을 강조하여 桂枝湯으로 먼저 表邪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解表한 다음에 다른 治方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熱結膀胱 其人如狂의 治方을 『傷寒論』에서는 桃核承氣湯을 제시하고 있고, 『傷寒明理論』에는 抵當湯을 제시하고 있으니 모두 합당하다.

11. 四逆이 나타나는 원인과 치법을 살펴보면 元陽이 虛衰하여 正氣가 四末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四逆湯으로 溫之해야 하며, 氣가 울체하여 氣機活動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四逆散으로 소통시켜야하고, 내부에 邪熱이 壅滯하여 陽氣가 밖으로 布散하지 못하는 眞熱假寒일 경우에는 白虎湯, 大承氣湯으로 瀉下시켜야 한다.

12. 厥逆의 證治에 대하여 熱邪가 안에서 잠복하여 발생한 熱厥은 먼저 發熱하고 뒤에 厥逆하는 것이므로 大柴胡湯, 小承氣湯으로 치료하고, 먼저 厥逆하고 뒤에 發熱하는 것은 陰이 물러나고 陽이 회복되는 것이므로 나오려는 것이며, 처음부터 바로 厥證이 있는 것은 陽이 不足하고 陰이 우세한 것이므로 四逆湯 등으로 치료한다.

參考文獻

<단행본>

1. 鄒澍.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3.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4.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註解傷寒論. 서울. 大

- 成文化社 影印. 1989.
5. 章楠. 醫門棒喝上.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6. 張仲景. 古本 康平傷寒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7. 朱肱. 增註南陽活人書. 서울. 三和精版社. 1987.
 8.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9. 喻嘉言, 醫門法律上. 서울. 東南出版社 影印. 1986.
 10. 蔡仁植 譯. 金匱要略精解.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6.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4.
 13. 吳謙 등. 醫宗金鑑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4.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影印. 1976.
 15. 張璠.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3.
 16. 陶華. 傷寒全生集. 서울. 醫聖堂 影印本.